비수도권 출신 서울 대학생의 도시애착 형성 요인과 정책 과제

연구책임

최기훈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학사과정

연구진

양준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학사과정
이하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학사과정
김연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학사과정
유지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사과정
이서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학사과정
정유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사과정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서론 1

1_연구 배경과 목적 1

2_연구 범위 5

3_연구 방법 7

02 대학촌과 장소애착 9

1_대학촌의 이해 9

2_장소애착에 대한 이해 17

03 대학촌으로서의 회기·이문 지역 21

1_인구 대비 높은 대학생 비율 21

2_보완형 및 도심 캠퍼스형의 대학촌 23

3_젊은 인구구조 25

4_높은 외국인 인구 비율 27

5_시·도 간 이동 중심의 많은 인구이동 28

6_높은 1인 가구 비율 29

04 심층 인터뷰 설계 31

1_인터뷰 설계와 대상자 선정 31

2_조사 및 분석 방법 35

05 대학생 거주자는 누구인가 42

1_교육을 위한 임시 거처에 살다 42

2_사회적 관계의 특성 44

3_일반적 특성 47

06 장소애착의 형성 요인은 무엇인가 51

1_주거지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 51
2_근린 환경에 대한 장소자산적 인식 55
3_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 60
4_사회적 유대의 영향력은 낮은 편 64

07 결론 65

1_종합: 결론 및 시사점 65
2_장소애착 형성 요인과 정책 제언 68
3_연구의 의의와 한계 74

참고문헌 75

부록1: 인터뷰 참여자의 내 동네 권역 지도 77

부록2: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참여 대학별 주요 내용(종합형, 1단계 단위형) 81

부록3: 참여자들의 회기에 대한 인식 변화 83

부록4: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회기·이문 지역의 장단점 85

표 목차

[표 1-1] 전국·서울의 면적, 대학 수, 대학생 수 비교 1

[표 1-2] 대학 소재지별 한 달 평균 주거비 지출 금액 3

[표 2-1] 미국 대학촌의 특성 10

[표 2-2] 대학촌의 분류: 캠퍼스 입지에 따른 분류 11

[표 2-3] 대학촌의 분류: 지역 연계 측면에 따른 분류 12

[표 2-4] 대학촌 관련 연구 동향 16

[표 2-5] 연구자에 따른 장소애착의 개념 18

[표 3-1] 회기·이문 지역 인구 대비 대학 재학생 수의 비율(2017년 기준) 22

[표 3-2] 회기·이문 지역의 중위연령과 20대 인구 비율 26

[표 3-3] 회기·이문 지역의 외국인 인구 비율(2017년 기준) 27

[표 3-4] 회기·이문 지역의 전출입률(2017년 기준) 28

[표 3-5] 회기·이문 지역의 1인 가구 비율(2015년 기준) 29

[표 3-6]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등록자 지역별 분포 현황 30

[표 3-7] 대학 기숙사 수용률의 비교(2018년 기준) 30

[표 4-1] 설문지의 구성 33

[표 4-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4

[표 4-3] 활동지 문항 구성 37

[표 4-4] 1차 활동 결과 요약 39

[표 6-1] 서울 내 자치구별 주민 1인당 근린공원 면적 순위표(2017년 기준) 57

[표 7-1]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유형별 특성 68

[표 7-2] 캠퍼스타운 중심 발전축 클러스터 및 클러스터별 구성 대학 69

[표 7-3] 상권 활성화 사업 시행 대학별 주요 사업 내용 70
[표 7-4] 대학생 대상 주거 지원 프로그램 72

그림 목차

[그림 1-1] 서울 지역 내 대학 분포 2

[그림 1-2] 전국·서울의 가구주 연령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3

[그림 1-3] 서울에서의 회기·이문 지역 위치 6

[그림 1-4]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위치 6

[그림 1-5] 연구의 과정 및 흐름 8

[그림 2-1] 대학촌 공간의 기능적 정의 10

[그림 2-2] 서울의 시가지 확산과 대학 캠퍼스의 입지 14

[그림 3-1] 경희대학교와 그 주변 지역 현황 24

[그림 3-2] 회기·이문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 26

[그림 4-1] 워크숍 1차 활동 38

[그림 4-2] 워크숍 1차 활동 결과 39

[그림 4-3] 워크숍 2차 활동 40

[그림 4-4] 워크숍 2차 활동 결과 40

[그림 4-5] 워크숍 2차 활동 분석 결과 요약 도식 41

[그림 5-1] 연구 참여자 [통영]의 사례1 43

[그림 5-2] 연구 참여자 [통영]의 사례2 44

[그림 5-3] 연구 참여자 [전주]의 사례1 45

[그림 5-4] 연구 참여자 [해운대]의 사례 45

[그림 5-5] 연구 참여자 [대전생물]의 사례 46

[그림 5-6] 연구 참여자 [대구]의 사례1 47

[그림 5-7] 연구 참여자 [전주]의 사례2 48

[그림 5-8] 연구 참여자 [홍성]의 사례 48
[그림 5-9] 연구 참여자 [부산]의 사례1 49
[그림 5-10] 연구 참여자 [대구]의 사례2 50
[그림 5-11] 연구 참여자 [충주]의 사례 50
[그림 6-1] 연구 참여자 [통영]의 사례3 52
[그림 6-2] 연구 참여자 [부산]의 사례2 53
[그림 6-3] 연구 참여자 [대구]의 사례3 55
[그림 6-4] 연구 참여자 [대구]의 사례4 56
[그림 6-5] 연구 참여자 [전주]의 사례3 58
[그림 6-6] 연구 참여자 [대구]의 사례5 60
[그림 6-7] 연구 참여자 [부산]의 사례3 60
[그림 6-8] 참여자들이 생각한 번화가의 모습과 회기·이문 지역의 모습 61
[그림 6-9] 연구 참여자 [대구]의 사례6 62
[그림 6-10] 연구 참여자 [전주]의 사례4 64
[그림 7-1] 대학생 단기 거주자의 특성 65
[그림 7-2] 경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사례: 공유형 상점 1호점(녹원) 전경 71

01. 서론

1_연구 배경과 목적

오늘날 서울에서 대학가를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2018년을 기준, 서울에는 총 48개의 대학이 존재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대학들이 위치해 있다(그림 1-1 참고). 또한 56만여 명의 대학생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전국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 서울이 전 국토 면적 중 단 0.6%만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서울은 대학과 대학생들이 상당히 응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표 1-1 참고). 이처럼 서울 곳곳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는 다른 시가지와 크게 구별되는 인구, 산업 구조를 가지며 특유한 대학가 풍경을 그려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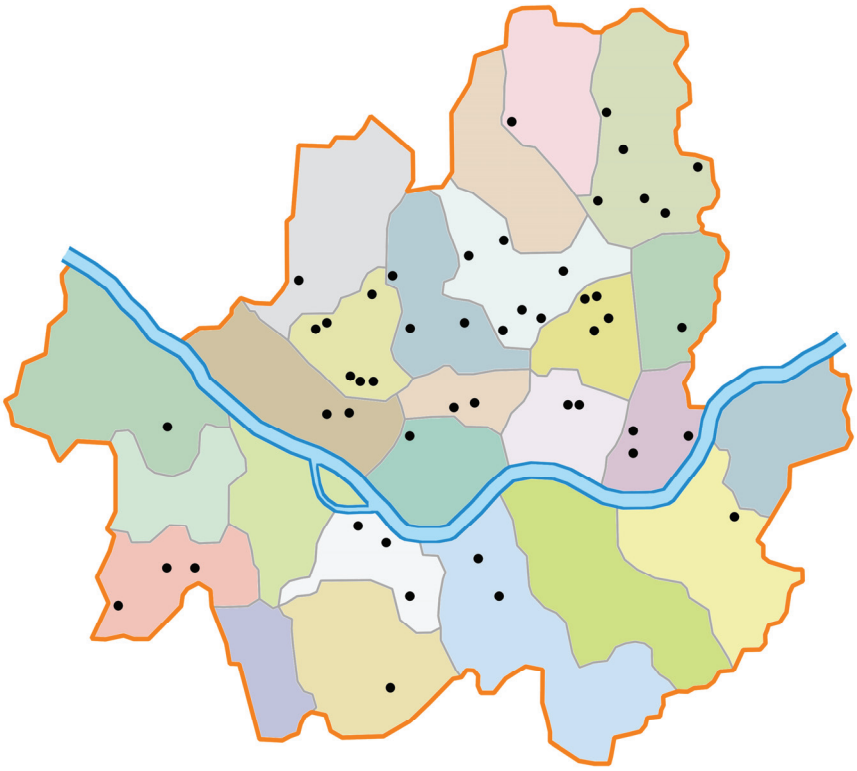
[표 1-1] 전국·서울의 면적, 대학 수, 대학생 수 비교

(단위: ㎢, 개교, 명)

구분	면적 (전국 대비 비율)	대학[1] 수 (전국 대비 비율)	대학생 수 (전국 대비 비율)
전국	100,363.72	340	2,719,970
서울	605.24 (0.6%)	48 (14.2%)	560,943 (20.6%)

출처: 지적통계(2018년), 국토교통부; 교육기본통계(2018년); 한국교육개발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산업대학.



[그림 1-1] 서울 지역 내 대학 분포

하지만 서울의 대학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과 인근 지역에 주거지를 둔 일부 학생을 제외하면 '서울 유학'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소를 옮기는 이주의 결정은 지역 자체와 지역이 제공하는 여러 조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비교가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진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서울에 홀로 둥지를 트는 청년의 경험은 특별한 인지적, 감정적 경험을 수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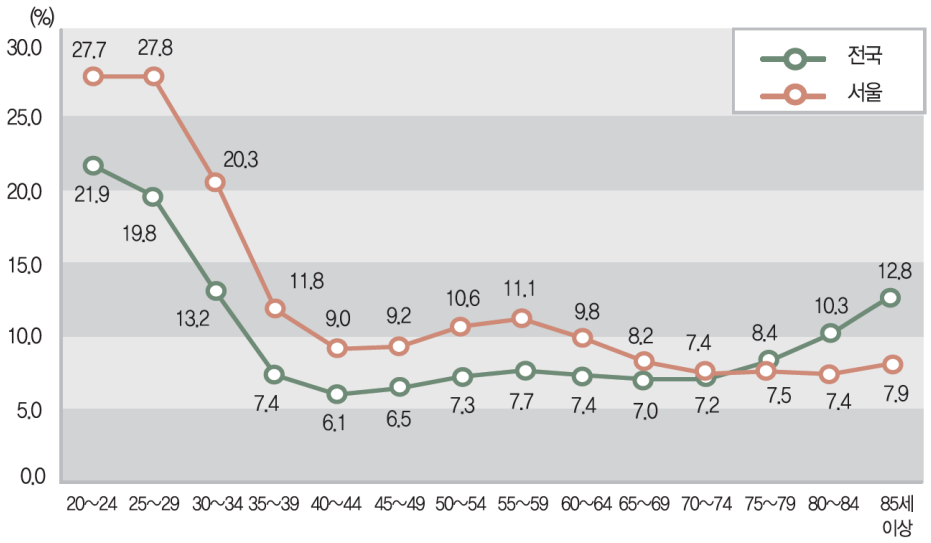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주거를 꾸리게 된 대학생 거주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거 비용을 지출하고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 직면한다(표 1-2, 그림 1-2 참고). 그럼에도 최소 4년에서 7년 정도의 짧지 않은 주거 기간을 갖는데, 주목할 점은 대학생 거주자는 주거 기간 동안 좀처럼 지역사회에 착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학촌의 주민으로서, 서울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애착을 뿌리내리기보다 대학을 둘러싼 필요충족 관계에 국한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한다.

[표 1-2] 대학 소재지별 한 달 평균 주거비 지출 금액

(단위: 만 원)

대학 소재지	평균 주거비 지출 금액
서울	28.6
광역시	24.6
도(道)지역 중소도시	20.4
도(道)지역 읍면지역	18.3

출처: 김지경, 2013,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 유형 및 주거 부담 현황", 「청소년정책리포트」 42, p. 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편집.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년).

[그림 1-2] 전국·서울의 가구주 연령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서울을 대학 도시로 호명하고자 한다면, 그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대학생 거주자는 누구인가? 대학생 거주자는 어떠한 인식과 경험을 통해 도시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는가? 이들의 애착 형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나아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갖출 때 대학가에서 '주민'의 주체가 탄생할 수 있을까?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회기·이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거주자들의 장소애착 형성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대학촌을 다룬 기존 연구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주로 다루었으며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를 강조하였다. 한편 대학생 거주자를 다룬 기존 연구

에서는 주로 주거 환경과 만족도, 주거비 부담과 청년의 주거권, 주거 열망과 고려 요인 등을 다루었다.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대학생 거주자를 '주민'으로 호명하는 데서 출발하고자 한다. 처음 입주하는 순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어떠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었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 왔으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거주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해 대학촌에 대한 장소애착의 형성 요인을 밝힌다.

2_연구 범위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동부권의 대학 밀집 지역인 회기동과 이문동에 거주하는 비수도권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인적 범위

첫째, 비수도권 출신 대학생 거주자가 연구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의 감정적 유대가 미약했던 비수도권 지역 출신 거주자의 애착 형성 과정을 통해 대학생 거주자의 장소애착 형성 요인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서울에서의 거주 경험이 없는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때 경기, 인천 지역 출신자는 통학과 여가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거 경험을 통한 애착 형성을 알아보는 데 간섭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둘째, 주거 기간 동안 회기·이문 지역에 대한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 형성된 거주자를 연구한다. 장소애착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성되는 사람과 장소의 특별한 관계를 지칭한다(Giuliani and Feldman, 1993; Ryan, 2005; 장호찬, 2010; 강영애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장소애착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전 서베이를 통해 거주기간 동안 장소애착이 형성된 거주자를 선별하였다.

2) 지리적 범위

연구 범위인 '회기·이문 지역'은 기본적으로 행정동 상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과 이문1동을 지역적 범위로 둔다(그림 1-3, 그림 1-4 참고). 이는 본 연구의 주제를 기본으로, 대학의 소재를 비롯하여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정의한 대학촌과 대학 주변 지역의 공간적 범위(정인호, 2018; 김흥순, 2010), 대학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서울 내 여러 대학 주변 지역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문2동은 회기·이문 지역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각각 회기동과 이문1동에 속하며 이문2동에는 어느 대학도 위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연령별 인구구성과 같은 인구통계의 양상이 회기동과 이문1동은 서로 유사하고 상당 부분 동질적이나 이문2동은 두 곳과 유사하지 않고 이질적인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3] 서울에서의 회기·이문 지역 위치

출처: http://www.ddm.go.kr/ddm/district.jsp(동대문구청); 일부 편집.

[그림 1-4]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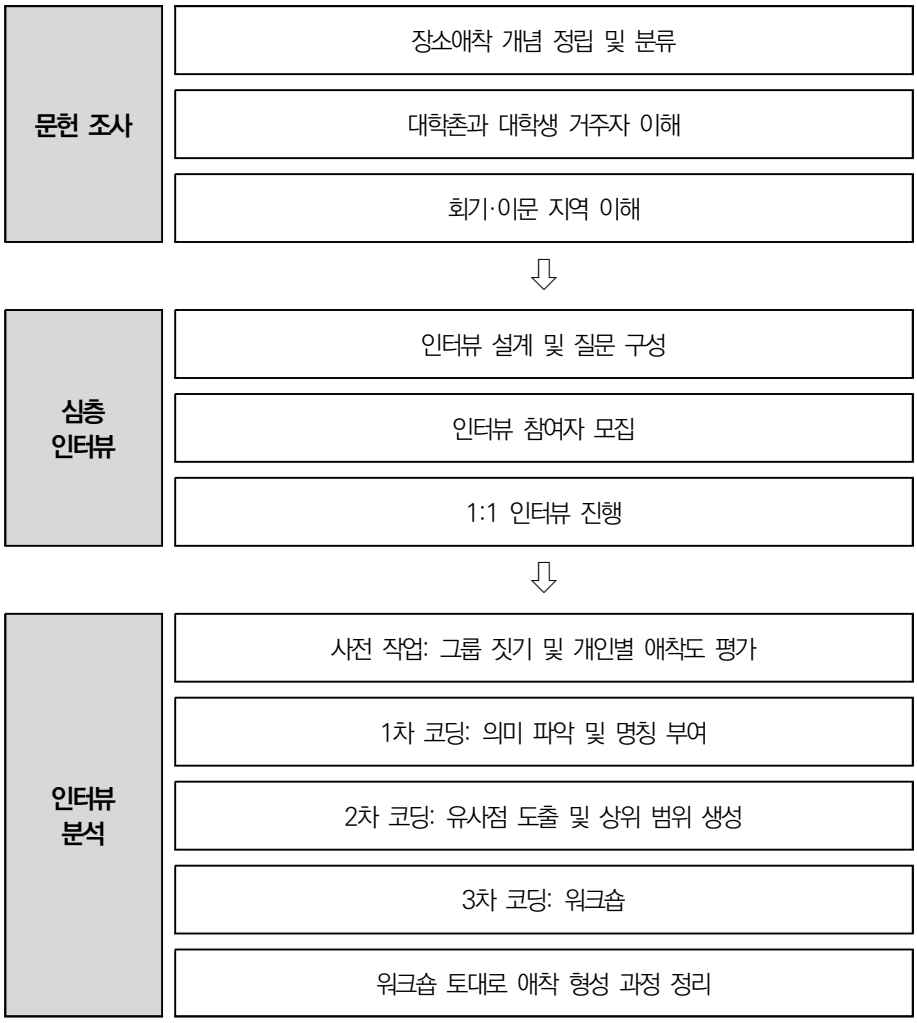
3_연구 방법

1) 문헌 조사

문헌 조사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국내, 국외의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먼저 본 연구의 기본 개념인 장소애착의 정의와 관련 변수를 정립한 후 대학촌과 대학생 거주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의 대상지인 회기·이문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장소애착 측정 항목과 설문 문항을 도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대학생 거주자의 장소애착 형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조직화하여 활용했다.

2)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연구 방법은 응답자의 상황이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심층적인 개인의 경험을 도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심층 인터뷰는 개인의 경험에서 사소하거나 예외적인 특성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김연희, 2010).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대학생 거주자의 장소애착 형성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편적인 자료보다 시간 흐름에 따른 경험적인 자료수집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심층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그림 1-5] 연구의 과정 및 흐름

02. 대학촌과 장소애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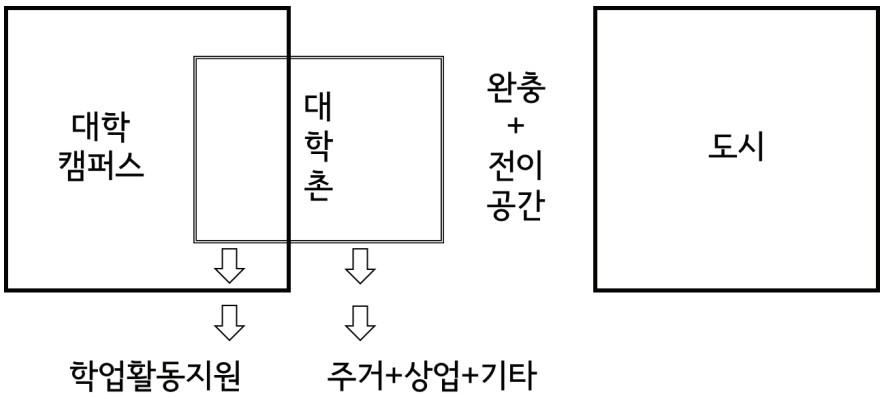
1_대학촌의 이해

1) 개념과 특성: 대학촌이란?

(1) 대학촌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대학은 본래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나, 그 실질은 교육의 기능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마을 또한 사람과 공간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사람이 모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은 '대학촌'의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말 그대로 대학촌은 대학 주변 지역에 형성된 마을을 뜻하며, 대학과 도시의 중간 지대이자 캠퍼스와 대학의 전이 지대로서 대학 캠퍼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캠퍼스와 도시의 복합공간으로 작용한다(유재득, 2012).

대학촌 개념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김영·하창현(2003)은 대학의 보완적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학 주변에 특정한 공간 영역이 형성되고 대학을 포함한 이러한 범 커뮤니티를 대학촌으로 보았다. 다른 정의로는 송규철(1996)이 대학촌을 캠퍼스와 대학의 중간에 위치하여 대학 캠퍼스를 지원하는 한편, 캠퍼스와 도시의 복합공간으로서 전이 공간과 완충 지대의 성격을 지녀 주변과 구별되는 특수한 공간이라고 보았다(그림 2-1 참고). 남윤섭(2006) 또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따라 대학촌을 대학과 도시의 중간 영역으로, 기존의 도시적 성격과 대학의 성격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특징적인 문화권이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정의하였고, 기능적으로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으로부터 대학 문화권을 보조하는 완충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출처: 송규철, 1996, "캠퍼스타운 계획을 위한 요소와 계획 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주변 대학촌을 중심으로"「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5, 단국대학교 대학원.

[그림 2-1] 대학촌 공간의 기능적 정의

한편, Gumprecht(2003)은 대학촌을 대학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로서, 고등교육기관이 분명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로 개념화하였다. 또 그에 따르면 대학촌은 각종 인구통계와 사회지표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표 2-1] 미국 대학촌의 특성

① 대학촌은 젊은 곳이다.
② 대학촌 주민은 고학력이다.
③ 대학촌은 공장 근로자가 적고, 교육 근로자는 많은 경향이 있다.
④ 대학촌 지역의 가계소득은 높고 실업률은 낮다.
⑤ 대학촌은 일시적인 공간이다.
⑥ 대학촌 거주자는 집을 빌려 같이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⑦ 대학촌은 색다른 공간이다.
⑧ 대학촌은 국제적이다.

출처: Blake Gumprecht, "THE AMERICAN COLLEGE TOWN", *Geographical Review*, 2003, 93(1), pp. 54-55; 일부 내용을 표로 재구성.

이렇듯 위에서 언급한 대학촌의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의 이론적 정의들을 정리했을 때에 대학촌의 개념은 크게 ① 대학 자체의 부족한 기능 보완, ② 도시적 속성과 대학의 속성 사이의 전이 및 완충, 혹은 ③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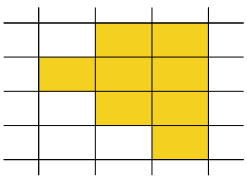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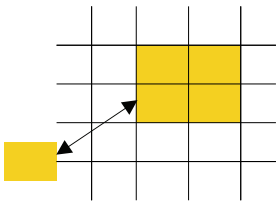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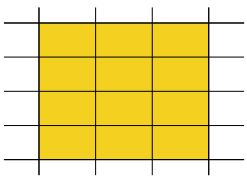
(2) 대학촌의 유형 및 구분

대학촌의 유형은 크게 대학과 지역의 연계, 대학 캠퍼스의 입지적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촌은 캠퍼스의 입지적 측면에 따라 그 역할과 특징을 구분하여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도심 캠퍼스형, 교외 분리형, 대학 도시형으로 나누어진다(표 2-2 참고). 이 중 도심 캠퍼스형은 도심지 내에서 대학들이 고밀도로 집중 개발된 형태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이 대부분 속한다.

대학촌은 또한 대학과 지역 간의 연계 정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보완형', '종속형', '독립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표 2-3 참고). 캠퍼스의 입지적 측면과 대학의 지역 연계 정도는 종종 상관관계를 지니는데, 김선호(2005)에 따르면 보완형의 대학촌은 도심 캠퍼스형의 대학 입지 유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대학촌 입지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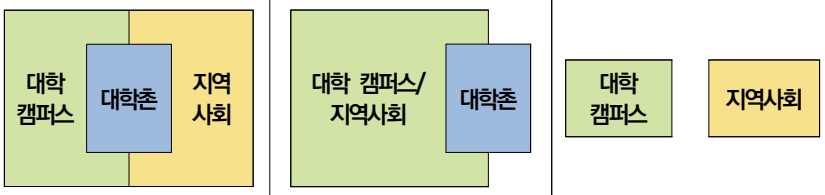
[표 2-2] 대학촌의 분류: 캠퍼스 입지에 따른 분류

구분	캠퍼스 입지에 따른 구분		
	도심 캠퍼스형	교외 분리형	대학 도시형
도해			
특징	도심부 일부에 고밀도로 대학 시설이 집중된 형태	교외의 한적한 오픈 스페이스나 주택 지구에 위치하는 형태	대학이 하나의 도시로 형성되어 도시와 혼합되어 나타나는 형태
사례[2)]	대다수의 서울 소재 대학,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제2캠퍼스	유럽의 중세대학

출처: 김선호, 2005, "건국대학교 진입가로의 활성화 방안"「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9,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 유재득, 2012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위한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7, 홍익대학교 대학원.

[표 2-3] 대학촌의 분류: 지역 연계 측면에 따른 분류

구분	지역 연계에 따른 구분		
	보완형	종속형	독립형
도해			
특성	대학과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을 공유하며 세력이 균등한 유형	대학촌이 지역사회에 의존하며 주변 지역에 기능적으로 종속된 유형	도시 외곽 또는 지방에 새로이 조성된 캠퍼스에 나타나는 유형
사례	연세대, 이화여대 주변의 신촌 지역	명지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수도권 지역의 이전 대학

출처: 강병수·최영일, 1998, "대학촌의 계획모형과 도입기능: 청양대학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9, p. 352,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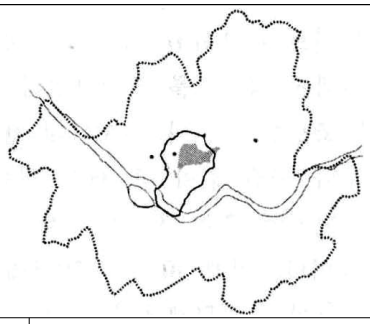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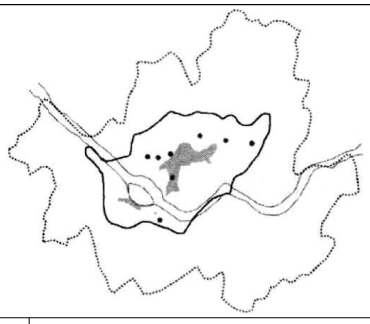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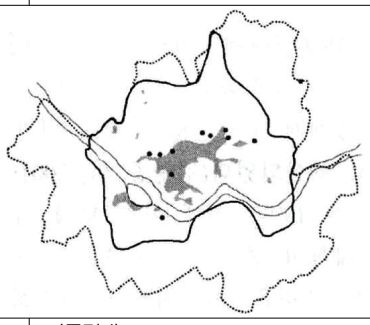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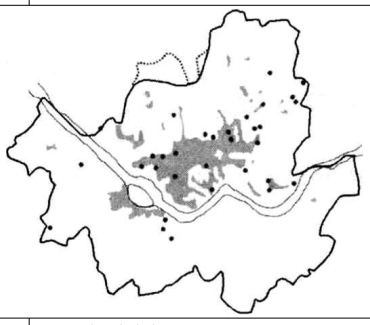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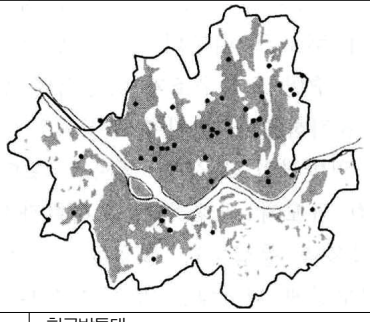
2) 서울의 대학촌 형성과 현황

서울의 대학촌 형성은 각 대학의 설립 시기와 대학 캠퍼스의 입지, 서울 지역의 시가지 확산 간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2]에서 보다시피 서울 지역 내의 캠퍼스들은 대부분 조성 당시 도심에 속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이전 설립된 서울 내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의 전통적인 도심지였던 사대문 지역에서 벗어나 당시 시가지 확장이 안 된 사대문 지역 주변부나 사대문 지역 내에서 높은 구릉지에 조성되었다. 그래서 서울의 초기 대학들은 주변 도시 블록으로부터 독립적인 형태적 특성을 지니었으며, 시가지와는 거리가 먼 입지적 여건을 지녔다(여혜진·김광중, 2008). 서울에서 대학 캠퍼스의 입지와 시가지 확산의 관계를 따져보자면, 캠퍼스가 먼저 조성이 되고 캠퍼스가 주변 지역의 시가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선후관계로 형성되었다. 그렇기에 서울의 대학촌 형성은 서울의 시가지화와 과정을 같이 했으며, 동시에 시가지화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의 대학촌은 초기에 대부분 교외 분리형 내지 미약한 정도의 도심 캠퍼스형에 가까웠으나 서울의 시가지화와 함께 도심 캠퍼스형이 일반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계획적 공간보다는 주변 지역의 개발 특성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공간에 가까웠다.

이러한 서울 지역 대학촌의 형성 과정은 서울 지역 대학촌이 갖고 있는 현재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서울의 대학촌은 도시와 대학의 복합공간으로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도심지와 캠퍼스의 단순한 연장선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또한 도시와 대학의 속성 모두 전이가 많이 되었으나 양자 간의 전이 속에서 이 둘을 완충하는 성격은 다소 약화된 경향을 갖고 있다.

위와 같은 대학촌의 현황에 대해 여러 연구들은 주로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강병수·최영일(1998)은 국내의 대학촌이 대학촌만의 구별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며, 주거지와 상가 등이 무질서하게 혼합된 채 주거와 유흥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이형진·김경배(2010) 또한 도심 속 국내 대학촌들이 문화·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상업 중심의 향락가로 형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서울 지역 대학촌의 특성과 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의 평가에 비추었을 때, 서울 지역 대학촌에 대한 향후의 연구들은 이러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table>
<tr><td rowspan="4">1920년대 이전</td><td colspan="2">  </td><td rowspan="4">1930년대</td><td colspan="2">  </td></tr>
<tr><td>a</td><td>성균관대</td><td>a</td><td>–</td></tr>
<tr><td>b</td><td>감리교신학대, 연세대, 서울시립대</td><td>b</td><td>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td></tr>
<tr><td>c</td><td>–</td><td>c</td><td>중앙대</td></tr>
<tr><td rowspan="4">1940년대</td><td colspan="2">  </td><td rowspan="4">1950~60년대</td><td colspan="2">  </td></tr>
<tr><td>a</td><td>가톨릭대</td><td>a</td><td>동국대, 상명대</td></tr>
<tr><td>b</td><td>성신여대</td><td>b</td><td>한양대, 경희대, 홍익대, 단국대, 한국외대, 동덕여대</td></tr>
<tr><td>c</td><td>삼육대</td><td>c</td><td>한성대, 육사, 건국대, 성공회대, 국방대, 숭실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그리스도대, 세종대, 광운대, 총신대</td></tr>
<tr><td rowspan="4">1970~80년대</td><td colspan="2">  </td><td rowspan="4">1990년대</td><td colspan="2"> </td></tr>
<tr><td>a</td><td>한국방통대</td><td>a</td><td>–</td></tr>
<tr><td>b</td><td>국민대, 추계예대, 한성대, 서경대</td><td>b</td><td>–</td></tr>
<tr><td>c</td><td>서울대, 서울교대, 한영신학대, 덕성여대, 한국체대, 서울기독대</td><td>c</td><td>한국예종</td></tr>
</table>

a: 사대문 주변(종로구·중구), b: 사대문 주변으로부터 5km 이내, c: 사대문 주변으로부터 5km 이외.

출처: 여혜진·김광중, 2008, "대학-지역사회의 협력적 계획의 한국적 여건", 「국토계획」, 43(5), p. 9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그림 2-2] 서울의 시가지 확산과 대학 캠퍼스의 입지

3) 연구 동향

대학촌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많은 수의 연구가 대학촌을 대학 주변 지역에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재된 채 형성된 공간으로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곳으로 이해하며 대학촌에 대한 주제에 접근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학촌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여러 대학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대학 주변 지역을 '캠퍼스타운'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연구 또한 많아졌다.

대학촌 관련 연구 내용은 크게 대학촌의 토지이용에 대한 연구, 대학촌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대학촌 개발과 활성화 계획·모델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표 2-4 참고). 대학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목적을 보았을 때는 주로 대학의 토지이용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대학을 지역재생의 동력이자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경향은 대학촌의 물질적 요소나 대학촌의 외적인 양상과 거시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하였으나, 대학촌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특성 및 주민들 간의 관계와 같이 대학촌의 비물질적이고 내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학촌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제시를 연구 목적으로 하는, 대학촌을 이루는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와 대학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학촌 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2-4] 대학촌 관련 연구 동향

연구 목적	연구자	연구 내용
대학촌의 토지이용	김종구(2006)	지방 사립대학의 발전과 확장 추이에 따라 요구되는 대학 주변 지역에 대한 계획적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캠퍼스 주변 토지이용 추이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학사촌(대학촌) 계획 방안을 제시
	김철수·전정아(2000)	대학 캠퍼스의 입지 조건 구분에 따라 대학 캠퍼스 주변 생활편익시설 이용 패턴을 분석
	김홍순(2010)	대학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과 대학 주변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
	문선기 외(2013)	설문조사를 통한 대학가 지역의 이미지 추출과 대학별 업종 분석을 종합하여 대학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을 도출
	이양재·유기룡(2001)	대학로 주변 지역의 형성 과정과 토지이용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 패턴을 분석
	엄선용 외(2012)	대학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을 용도와 개발밀도의 측면에서 도출하고 이에 따른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
대학촌과 지역사회 관계	김태현·이태희(2017)	대학-지역사회 협력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서울시 사례를 심층 인터뷰하여 낙후된 기성 시가지의 활성화에 대학의 역할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안
	김홍일·이욱주(2006)	도심형 대학의 사례로서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중심으로 도심형 대학과 대학 주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가능케 하는 통합형 프로그램을 제시
	남윤섭(2006)	캠퍼스타운의 개념을 확립하고, 대학의 분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
	이창호·배웅규(2007)	대학시설의 대학 주변 지역으로의 전개 경향을 분석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과 주변 지역을 일체적으로 정비하는 대학마을 재정비 방법을 발굴
	여혜진·김광중(2008)	대학-지역사회의 협력적 여건의 한국적 여건과 특수성을 확인하고 외국 사례와의 사회·문화적 차이점을 논의
대학촌 개발 및 활성화 계획·모형	강병수(1998)	국내외 대학촌을 검토하여 대학촌들을 몇 개의 모형으로 분류하고 청양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과 지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학촌 계획 모형 정립
	백태열(2018)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부문별 사업 요소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사업 요소 간의 우선순위를 제시
	유재득(2012)	한국의 교육 여건 변화 과정과 캠퍼스타운 정책의 변화, 물리적 특성, 계획특성, 지역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위한 모형을 구축
	이형진·김경배(2010)	제한적이고 단일한 역할을 수행하던 기존의 대학촌들에 대한 새로운 개발·정비 방안을 모색
	장성준(1992)	수도권의 신규 대학 캠퍼스에서 생기는 학생 주거 여건 및 대학촌 기능 부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촌 개발 전략을 제시

2_장소애착에 대한 이해

1) 장소애착의 개념

사람은 태어나 살아가면서 장소에 대한 경험을 가지게 되며 개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감정적·인지적 감상을 받게 된다(Knez, 2005). 장소애착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과 물리적 환경의 관계가 있다(이석환·황기원, 1997; 김혜영·김세준, 2014).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성된 감정적 유대감으로 사람은 장소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라고 한다(Giuliani and Feldman, 1993; Ryan, 2005; 장호찬, 2010; 강영애 외, 2012). 장소애착의 개념은 장소 물리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이 결합된 개념으로 장소와 사람의 정체성 형성에 깊은 연관이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가 특정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감정적·기능적 유대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Low and Altman, 1992; 윤현희·이진호, 2013).

장소애착과 관련한 개념 정의를 알아보면, Low and Altman(1992)은 장소애착을 장소와 관련된 환경과 사람의 행위 간에 인과관계로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인지와 실제 사람의 행위가 통합되어 사람이 환경에 대해 표출하는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Yuksel and Bilim(2010), Raymond et al.(2010)은 사람이 장소와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능적인 유대감이 생성되는 것뿐 아니라 장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내 논문에서 장소애착의 개념은 공동체애착(강신겸, 2001), 귀속감(박청인, 2000)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장소애착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 고동완 외(2015)와 고동완·황금희(2015)은 장소애착에 대한 개념을 장소 의존성, 장소 정체성, 장소 감정 및 장소 사회적 결속으로 구분하여, 전통적인 이분설인 장소 의존성과 장소 정체성의 구분에서 사분설로 확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 활동의 공간적인 요소와 사회적 관계와 같은 비공간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표 2-5]는 장소애착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정의하는 장소애착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표 2-5] 연구자에 따른 장소애착의 개념

연구자		개념설명
국외	Stokols and Shumaker(1981)	환경과 인간, 그리고 이에 지각되는 장소에 대한 의존 상태
	Feldman(1990)	개인이 지속적으로 가지는 특정 장소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심리적 경향에서 비롯된 애착심
	Brown and Perkins(1992)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 안전의 느낌과 존중, 장소와 관련된 소속감으로 인해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감정, 감정적 유대감
	Low and Altman(1992)	사회·물리적 환경에 대한 동태적, 지속적인 유대감으로 환경에 대한 인지와 실체적 행동이 통합되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환경에 대한 반응
	Lev-Wiesel(2003)	장소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상호 돌봄의 유대감, 개인의 착근성 과정으로 장소에 대한 친숙성과 살아온 장소에 기반을 둔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
	Raymond et al.(2010)	인간과 장소의 반복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기능적 유대감과 특정 장소와 개인 사이의 감정적 또는 정서적 유대감
	Yuksel et al.(2010)	
국내	최승담·강신겸(2001)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사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연대감
	한지훈(2011)	특정 관광 활동을 선택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귀속감, 충성도, 지역성이나 지역사회 애호도 등으로 표현
	고동완·황금희(2015)	관광객이 특정 장소에 대해 가지는 의식과 감정으로 장소 의존성, 장소 정체성, 장소 감정 및 장소 사회적 결속으로 구분
	고동완 외(2015)	개인 또는 단체가 특정 장소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또는 기능적 유대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관광 활동의 물리적 공간 요소와 인문적, 사회적 측면의 비공간 요소를 포괄하는 것

출처: 김흥순, 2010, "서울시내 주요 대학 주변 토지이용 특성 연구", 「도시행정학보」, 23(4), p. 164, 한국도시행정학회.

다음과 같이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소애착의 개념은 구체적인 구분이나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장소와 인간을 연결한다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장소애착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장소애착은 장소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특정 장소에 기능적·감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소애착의 구성 요인

장소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전통적인 구성 요인으로는 기능적인 애착을 의미하는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과 장소 의존성(place dependence)이 있다. 전통적인 이분설은 장소애착의 기능적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장소애착이 장소에 존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위의 두 가지 관점 외에 장소 감정(place affect) 및 장소 사회적 결속(place social bonding) 관점을 구성 요인에 추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동완·황금희, 2015).

(1) 장소 정체성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의 개별성으로 특정 장소를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김동근·이한울·안건혁, 2007). 또한 개인은 장소로 인해 감정적·상징적 자아를 표현하며 구성원들은 장소를 통해 자신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다(최열·임하경, 2005). 다시 말해 장소 정체성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강한 욕구와 정서적 애착을 바탕으로 장소에 대한 강력한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다(Proshansky et al.,1983; Kaltenborn, 1997). 따라서 장소 정체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소에 대한 경험이나 가치, 생각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이웃이나 가족 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는 집단과의 관계를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Proshansky et al., 1983; Kaltenborn, 1997; 김혜영·김세준, 2014).

(2) 장소 의존성

장소 의존성(place dependence)은 특정한 장소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소에 대해 강하게 의존하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강신겸, 2001). Williams(1989)는 장소 의존성은 개인이나 단체가 그 장소에서 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 충분한 쾌적함(amenity)을 제공하는가를 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장소 의존성은 기능적 애착으로 볼 수 있는데 특정 장소에서의 능력과 관련된 기능적 애착으로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특정한 활동을 할 때 다른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그 장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김동근, 2008; 김혜영·김세준, 2014). 이러한 장소 의존성은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능적 자원 측면에서 우수한 정도나 다른 장소와 비교하여

형성되는 선호도에 따라 결정된다(Williams et al., 1992; 김혜영·김세준, 2014).

(3) 장소 감정 및 장소 사회적 결속

장소 감정(place affect)은 개인이 장소와 공유하는 감정적인 결속으로 정의할 수 있다(Jorgensen and Stedman, 2001; Kals and Maes, 2002). 장소 사회적 결속(place social bonding)과 관련하여 Wiles(2005)는 사람이 장소를 구성하고 장소가 사람을 구성한다는 상호 보완적 특성을 주장하며 장소와 사회적 관계의 상관성을 상호 간의 구성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고동완·황금희, 2015). 장소 감정과 장소 사회적 결속은 장소애착의 감정적인 애착을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한 결속이라는 심리적 개념으로 간주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웃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Stokowski &Lee, 1991; 고동완 외, 2015).

03. 대학촌으로서의 회기·이문 지역

1_인구 대비 높은 대학생 비율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대학촌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론적 틀과 회기·이문 지역에 관한 각종 데이터는 회기·이문 지역이 어떻게 대학촌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와 함께 대학촌으로서의 회기·이문 지역은 대학촌과는 다른 유형의 지역들과 서울·전국과 같은 상위 범위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별되는 지역적 특징을 나타낸다. 대학촌의 개념을 양적으로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 중 하나로 지역의 전체 인구 대비 대학생 수의 비율이 20% 이상인 것을 들 수 있다(Gumprecht, 2003). 이 지표를 회기·이문 지역에 대응시킨 결과, 2017년 회기동(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소재)의 인구 대비 대학 재학생 수의 비율은 114.7%에 달했으며[3] 이문1동(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소재)의 비율은 38.4%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 서울과 전국에서의 인구 대비 재학생 수의 비율은 5%를 조금 웃도는 정도였다. 이를 통해 회기·이문 지역이 대학촌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회기동은 인구수가 1만 명대로 서울 내 행정동 중 인구수가 적은 편에 속하는 반면,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는 재학생 수가 1만 명이 넘는 큰 규모의 종합대학이다.

[표 3-1] 회기·이문 지역 인구 대비 대학 재학생 수의 비율(2017년 기준)

(단위: 명, 명, %)

행정구역	대학명	대학 재학생 수[4]	총 인구[5]	인구 대비 재학생 수의 비율
회기동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14,365[6]	12,521	114.7
이문1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11,968[7]	31,172	38.4
전국	-	2,759,083	52,950,306	5.2
서울특별시	-	558,265	10,124,579	5.5
동대문구	-	71,975	366,011	19.6

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대학개별공시.

5)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서울특별시,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동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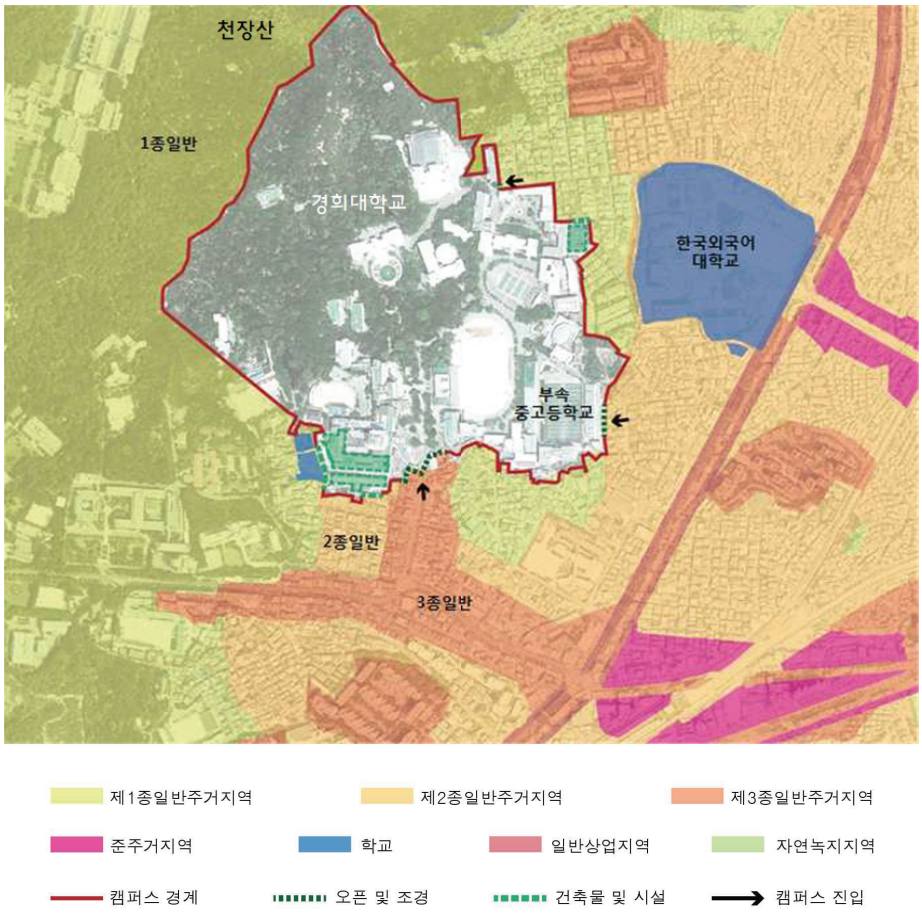
6) 경희대학교의 대학알리미 대학개별공시 자료 중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 해당하는 일부 자료에 해당함.

7)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대학 알리미 대학개별공시 자료 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 해당하는 일부 자료에 해당함.

2_보완형 및 도심 캠퍼스형의 대학촌

앞서 대학촌의 유형을 분류한 것에 회기·이문 지역을 비추어 보았을 때, 회기·이문 지역의 대학촌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측면에서 '보완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완형의 대학촌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대학을 중심으로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회기·이문 지역은 대학 캠퍼스와 지역사회가 서로 격리되거나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대학 캠퍼스와 지역사회의 중간 지대로서 주거·소비·문화 등의 토지이용이 혼합(문선기 외, 2013; 김흥순, 2010)되어 나타난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입지적 측면에 따른 분류로 보았을 때에 회기·이문 지역의 대학촌은 '도심 캠퍼스형'에 속하는데, 도심 캠퍼스형은 대학 캠퍼스가 도심 내에 고밀도로 형성된 형태로 대학촌 역시 대학 캠퍼스 주변부의 도심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경희대학교는 대부분의 서울 내 대학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조성 초기 당시 도심이 확장되기 전인 시가지 주변 지역에 입지하여 가로에 면한 부분 이외에는 주로 토지 확보가 쉽고 지가가 낮은 구릉지 쪽으로 부지를 확보하였고(김태현·이태희, 2017), 후에 도심이 확장됨에 따라 캠퍼스 전용 대지와 주변 도시 블록이 구분되는 형태적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주변 지역의 시가지화에 따라 캠퍼스가 도심 속에 자리 잡게 되고, 대학 관련 시설들은 대규모의 전용 대지 내에 고밀도로 집중되어 도심 캠퍼스형 대학촌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출처: 정인호, "대학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경계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 4, 홍익대학교 대학원: 인용 및 편집.

[그림 3-1] 경희대학교와 그 주변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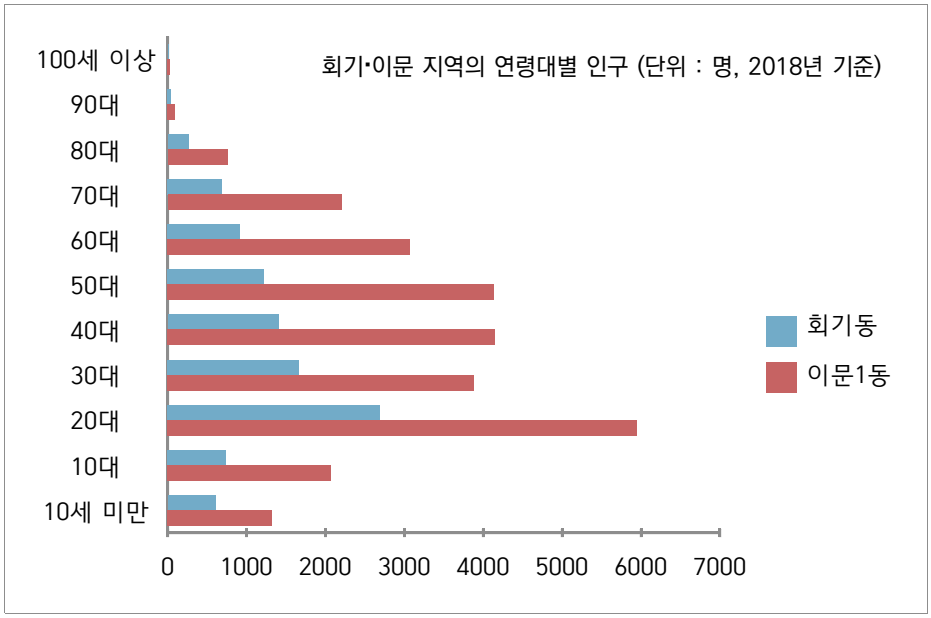
3_젊은 인구구조

2018년 기준, 회기·이문 지역의 중위연령을 살펴보면 회기동은 29.9세, 이문1동은 37.1세로, 서울의 다른 동(洞)들과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전체와 전국의 중위연령이 주로 40대 정도인 것에 비해 젊었다. 특히 회기동은 29.9세로 전국 중위연령보다 10년 넘게 젊었는데, 이는 서울 내에 있는 424개 행정동들 가운데 서대문구 신촌동과 성동구 사근동에 이어 세 번째로 젊은 나이이다. 서울에는 중위연령이 20대 이하인 행정동이 3곳밖에 없는데, 회기동이 그중 하나이다. 대학촌의 정의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학촌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젊은 곳이며, 중위연령은 전국보다 거의 10년가량 젊었는데,[8] 이와 같은 결과를 회기동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회기·이문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점은 인구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회기·이문 지역 주민 중 4분의 1 이상이 20대 인구이다. 서울 전체와 전국을 통틀어 봐도 20대 인구가 10%대 남짓인 반면에, 회기동은 34.4%, 이문1동은 26.9%로 서울특별시의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이는 지역 내에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개교를 비롯하여 지역 주변부에 여러 대학들(KAIST 서울캠퍼스,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이 가까운 거리에 군집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주 연령대인 20대 주민 비율이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회기·이문 지역에서도 특히 회기동은 전체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20대 주민인데 이러한 인구구성을 지니는 행정동은 서울 내 6곳뿐이다. 이문1동 또한 20대 주민 비율이 25%를 넘는 15개 행정동 중 하나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들 대부분보다 20대 주민 비율이 높다. 특히 20대 중에서도 대학의 주 구성원인 학부생이 속하는 20~24세 비율이 서울시와 전국 모두 7% 내외인 것에 비해, 회기동은 19.4%이고 이문1동은 14.8%로 나타나 20대 비율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전국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회기·이문 지역에는 20대 중에서도 20~24세의 20대 초반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8) Blake Gumprecht, 2003, THE AMERICAN COLLEGE TOWN, *Geographical Review*, p. 54.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3-2] 회기·이문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

[표 3-2] 회기·이문 지역의 중위연령과 20대 인구 비율

(단위: 세, %, %)

행정구역	중위연령[9]	20대 인구 비율[10]	20 ~ 24세 인구비율[11]
회기동	29.9	34.4	19.4
이문1동	37.1	26.9	14.8
전국	42.6	13.5	6.9
서울특별시	42.1	15.0	7.0
동대문구	42.4	17.1	8.6

9) 2018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위연령(동별) 통계.
10) 2017년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11) 2017년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4_높은 외국인 인구 비율

회기·이문 지역은 이외에도 국제적 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역시도 대학촌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대학은 국내외에서 여러 학생들과 교수를 모집하기 때문이다(Gumprecht, 2003). 따라서 대학 주변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으며, 인구구조에 있어서도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회기·이문 지역에서도 나타나 회기동과 이문1동의 전체 인구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각각 18.0%, 11.2%로 나타났다. 전국의 등록인구 중 2.2%만이 외국인이고 서울 전체에서도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2.6%인 것과는 현저히 대조된다. 회기동과 이문1동의 외국인 비율은 서울 내의 다른 외국인 밀집 지역에 못지않은 정도다. 서울 내 행정동 중에서 회기동은 열 번째로, 이문1동은 스물네 번째로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서울 내 다수의 동(洞)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회기·이문 지역의 국제적 다양성은 대학 캠퍼스에서도 나타난다. 2018년 경희대학교에서는 한국 외 94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한국 외의 91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였다.[12] 이처럼 회기·이문 지역의 대학촌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유입되며,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지역들보다 뚜렷한 국제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표 3-3] 회기·이문 지역의 외국인 인구 비율(2017년 기준)

(단위: 명, %)

행정구역	인구수[13]			외국인 비율[14]
	총 인구	내국인 수	외국인 수	
회기동	12,521	10,271	2,250	18.0
이문1동	31,172	27,666	3,506	11.2
전국	52,950,306	51,778,544	1,171,762	2.2
서울특별시	10,124,579	9,857,426	267,153	2.6
동대문구	366,011	350,647	15,364	4.2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대학개별공시.

1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서울특별시, 서울시 주민등록인구(동별) 통계.

14) 총 인구/외국인 수*100

5_시·도 간 이동 중심의 많은 인구이동

회기·이문 지역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높은 전출입률을 들 수 있다. 즉 오랜 시간 변화가 크게 없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변하는 동적인 공간임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대학촌의 특징 중 하나이다(Gumprecht, 2003). 이는 대학생들이 대학촌에 거주하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대학에 있기 때문이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음과 동시에 졸업을 하면서 지역을 떠나는 인구 또한 많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회기·이문 지역은 전입률과 전출률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표 3-4 참고). 다만 이문1동의 총 전입률은 서울과 전국에 비해 낮지만 시·도 간 전출입률은 서울과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문1동의 인구이동이 서울을 넘어서는 지역 간 이동이 주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회기동은 시·도 간 전출입률을 비롯하여 총 전출입률 모두 서울과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인구이동 규모가 서울과 전국에 비해 더욱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같은 회기·이문 지역인 이문1동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하다.

[표 3-4] 회기·이문 지역의 전출입률(2017년 기준)

(단위: %)

행정구역	총 전입률	총 전출률	시·도 간 전입률	시·도 간 전출률
회기동	18.6	21.7	9.4	8.1
이문1동	13.3	17.1	6.3	6.4
전국	14.0	14.0	4.7	4.7
서울특별시	15.1	16.2	4.7	5.7
동대문구	13.8	15.2	4.5	5.1

2017년 기준,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6_높은 1인 가구 비율

대학촌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역 내 가구 현황에서 다른 지역들과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이다. 1인 가구 비율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7.9%로 2015년에 비해 0.7%p 증가했다. 그중 청년층 1인 가구는 11.3%로 2010년에 비해 20.8% 증가했다.[15]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며 특히 교통과 편의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대학가 주변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추세이다.[16] 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약 4분의 1 정도이며 서울 역시도 이와 비슷한 29.5%의 비율을 보인다. 반면에 회기·이문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는데 회기동은 61.4%, 이문1동은 51.3%에 이른다. 즉, 지역 내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유형이 1인 가구라는 의미이다.

[표 3-5] 회기·이문 지역의 1인 가구 비율(2015년 기준)

(단위: %)

회기동	이문1동	전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1.4	52.3	27.2	29.5	36.1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에도 비수도권 출신의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지역 대학의 특성과 기숙사 공급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015학년도에 경희대학교 등록자 중 36.4%는 비수도권 출신의 학생들이었다(표 3-6 참고). 하지만 비수도권 출신 학생들의 대표적 주거 수단 중 하나인 기숙사의 재학생 수 대비 수용률은 2018년 기준으로 경희대학교의 경우, 21.4%에 그치고 있다(표 3-7 참고). 특히 같은 시기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률이 16.1%에 불과하여 경희대학교보다도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즉 많은 수의 학생들이 기숙사가 아닌 자취, 하숙 등의 방법으로 대학 주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을 알 수

15) 통계청, 2017, 「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 결과 보도자료」.
16) 고유선, 2014.04.17., "서울 1인가구 대학가 부근 밀집…관악구 최다", 뉴스1.

있다. 이를 통해 회기·이문 지역에는 대학을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서 대학 주변에서 혼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많으며, 그것이 1인 가구 비율로 나타났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6]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등록자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명, %)

지역	등록자 수	비율
서울	1,485	28.0
경기	1,489	28.1
인천	254	4.8
수도권	3,228	6.1
부산	248	4.7
대전	188	3.5
대구	199	3.8
광주	112	2.1
울산	108	2.0
세종	7	0.1
강원	100	1.9
경남	220	4.1
경북	163	3.1
전남	113	2.1
전북	115	2.2
충남	200	3.8
충북	126	2.4
제주	73	1.4
비수도권	1,972	37
기타	102	19
총 합계	5,302	100

출처: 임진택 외, 2015, “대학입학전형에서 입학생의 다양성 연구”, 「입학전형연구」, 제4권, p. 44, 경희대학교 입학전형연구센터.

[표 3-7] 대학 기숙사 수용률의 비교(2018년 기준)

(단위: %)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지역 대학 평균	전체 대학 평균
21.4	16.1	13.4	21.5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대학개별공시.

04. 심층 인터뷰 설계

1_인터뷰 설계와 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출신 대학생 거주자들이 회기·이문 지역에 가지는 애착의 정도와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할 인터뷰 대상자는 '24개월 이상 회기·이문 지역에 거주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거주자 중 지역에 대해 장소애착이 형성된 사람'으로 기준을 두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장소애착 정도와 주거 경험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온라인 설문을 하여 일정 점수 이상의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심층 인터뷰 설계

(1) 온라인 사전 설문 구성

조사 대상자의 장소애착 정도를 파악하는 설문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Jorgensen and Stedman, 2001; Kyle et al., 2004; Safarinia, 2012; 강신겸, 2002; Iran, 2018)를 바탕으로 연구에 적합한 측정변수를 추출하였다. 이를 연구 목적에 따라 장소 정체성, 장소 의존성, 장소 감정, 장소 사회 결속 등을 기초로 한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적절한 변수를 추출한 후에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반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변수를 조작화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장소 사회 결속과 관련하여 Kyle et al.(2004)의 '나는 이웃 관계를 즐긴다(I enjoy relationships with my neighbors)'라는 문장과 Iran(2018)의 '만약 이 장소(마을)를 떠난다면, 나는 일부 친구와의 연락이 두절될 것이다(If I were to stop living Sadra, I would lose contact with a number of friends)'라는 문장은 본 연

구에서 '나는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변형하였다. 장소 의존성과 관련하여 강신겸(2002)의 '다른 곳으로 떠날 기회가 생긴다 해도 하회마을에서 계속 살겠다'는 문항은 '학기 중이 아니라도 회기·이문동에 남아 있고 싶다'라고 조작화하였다. 각각 구성 요인별로 측정 항목은 장소 정체성 3문항, 장소 의존성 4문항, 장소 감정 4문항, 장소 사회적 결속 3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on)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 척도로는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은 명목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4-1]은 설문지 구성 내용과 측정 항목이다.

(2) 연구 대상 모집 및 선정 과정

모집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경희대·외대의 각 단과대 건물을 직접 돌아다니며 인쇄된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온라인의 경우 대학별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각 대학 홍보 게시판에 인터뷰 대상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사전 정보 수집 및 인터뷰 대상자 선별을 위해 두 경우의 공고 모두 온라인 설문 링크를 첨부하여 인터뷰 조사자 지원 전 간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는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섹션은 지원자의 일반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성별, 소속/학번, 휴대폰 번호, 주거 유형, 동거인 수, 주거 구역, 주거 기간 등 총 7개 문항에 필수로 답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섹션은 아래 [표 4-1]과 같이 총 14가지 질문들로 구성하였으며 이 질문들은 장소애착을 구성하는 4가지의 요소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섹션은 인터뷰 희망 일정 조사를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인터뷰 진행이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되, 지원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사전 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으로 20대 미혼인 남녀 중에서 둘째, 비수도권 출신으로 2년 이상 회기동·이문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셋째, 거주 기간 동안 회기·이문 지역에 대한 애착(친밀감, 애정 등)이 형성된 자를 우선 모집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장소애착 측정 항목에 대한 결과로는 각 요소별 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소애착도가 높다고 판단하였고, 합계가 70점 만점에 57점을 넘지 못한 경우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중 경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과, 성별 등의 요소와 4구역으로 분리한 현 거주지를 추가로 고려하여 최종 11명을 인터뷰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표 4-1] 설문지의 구성

항목	변수	출처
장소 정체성 place identity	1) 나는 그 어떤 곳보다 회기동/이문동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2) 회기동·이문동이 고향처럼 느껴진다. 3) 회기동·이문동에 있을 때 진정한 나인 것처럼 느껴진다.	Jorgensen and Stedman (2001) & Iran (2018)
장소 의존성 place dependence	1) 회기동/이문동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2) 학기 중이 아니라도 회기동·이문동에 남아 있고 싶다. 3)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이 회기동·이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4) 회기동/이문동에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다.	Jorgensen and Stedman (2001) & 강신겸 (2002)
장소 감정 place affect	1) 회기동·이문동에 있을 때 편안하다. 2) 회기동·이문동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3) 회기동·이문동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다. 4) 회기동·이문동을 오랜 기간 떠난다면 그리워질 것이다.	Jorgensen and Stedman (2001) & Kyle et al.'s (2004)
장소 사회 결속 place social bonding	1) 회기동·이문동을 떠난다면 주변 사람들이 아쉬워할 것이다. 2) 다수의 내 친구들은 다른 곳보다 이 장소를 더 좋아한다. 3) 나는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	Kyle et al.'s (2004) & Safarinia (2012)

2) 인터뷰 선정자 개괄

본 연구는 단기 거주 전입자의 장소애착 형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 지역(회기동·이문동 일대)에 거주하는 비수도권 지역 출신의 대학생을 모집하였고, 총 165명이 심층 인터뷰에 지원하였다. 최종 선정된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여자 7명, 남자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경희대 학생 8명, 한국 외대 학생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기·이문 지역 내 거주 지역은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였다. 최소 24개월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하였고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선정된 인터뷰 대상자 모두 지역에 대한 강한 장소애착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애착 점수 평균은 전체 지원자 165명 중 상위 12.48%에 해당했다.

[표 4-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관리 명칭	거주 형태	거주 기간	애착 점수 (70점 만점)
해운대	자취(1인)	3년	60점
충주	자취(동거)	4년	65점
홍성	자취(1인)	2년	64점
전주	자취(1인)	2년 2개월	65점
대전중통	자취(1인)	2년	65점
창원	자취(동거)	2년	61점
강릉	자취(동거)	2년 2개월	58점
대전생물	하숙, 고시원	4년	60점
부산	자취(1인)	5년	63점
대구	기숙사(2인)	2년	61점
통영	기숙사(2인)	2년 1개월	64점

2_조사 및 분석 방법

1) 일대일 심층 인터뷰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거주 기간 동안 겪은 주거 경험과 인식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심층 인터뷰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사용했다. 인터뷰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질문 영역을 구분하는 큰 틀을 기반으로 인터뷰의 적절한 흐름을 유지함과 동시에 답변 형식에 큰 제한을 두지 않아 연구 참여자의 열린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인터뷰는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125호에서 다과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실시되었다. 인터뷰는 한 연구 참여자당 1회 실시되었으며 1회당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실시 전 본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자료 처리 방법 등 연구 과정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음성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출신 지역 이름으로 관리 명칭을 설정해 사용했다. 모든 인터뷰가 연구자 2명과 면담자 1명의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녹취 후 녹취록으로 기록되었다. 2019년 2월과 3월 총 두 달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의미 위주의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의미 중심으로 여러 차례 분석하였다. 사전 분류 작업, 1차 분석(명칭부여), 2차 분석(상위범주화), 3차 분석(워크숍)의 총 4단계에 걸쳐 분석했다. 먼저 인터뷰 녹취록을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과 답변, 주제의 맥락에 따라 내용을 분절하여 떼어 놓는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일정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답변의 뭉치를 바탕으로 해당 단락의 의미를 보여 줄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는 1차 분석 작업을 했다. 2차 분석 작업에서는 부여된 명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는 코드를 조금 더 포괄적인 범주로 묶어 새로운 상위범주를 생성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의 장소애착도를 측정하였다. 장소정체성, 장소 의존성, 장소 감정, 장소 사회적 유대까지 총 4개의 장소애착도 구성 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 14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코드를 대조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3차 분석으로 연구진과 연구 참여자 중 일부가 참여하는 워크숍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자료 분석이면서 동시에 연구진의 분석을 인터뷰

응답자가 직접 확인하는 검증 작업이기도 하다. 워크숍은 아래에 설명을 덧붙인다.

3) 연구 참여자 워크숍

(1) 기획 및 설계

본 연구는 분석의 마지막 과정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경험과 장소애착도 간의 상관관계, 의미를 부여한 경험과 인식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워크숍 대상자는 연구 참여자 중 거주 지역과 거주 경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4명(대구, 대전생물, 대전중통, 통영)을 선정했다. 워크숍 활동은 의미를 중심으로 1·2차 분석에서 생성된 범주 중 참여자가 인식하는 장소애착 형성 요인을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부과하는 1차 프로그램, 경험과 인식의 상관관계 및 선후관계를 탐색하는 2차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워크숍은 1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120분간 진행하였다.

활동에 필요한 설명변수 설정을 위하여 1·2차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참여자들의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회기·이문 지역 거주 대학생의 일반 특성이 반영된 문항을 빈도수와 중요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회기의 첫인상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은 '첫 이미지가 좋지 않았고, 구질구질, 칙칙했다(전주)', '회기·이문은 허름하다(부산)', '회기 이미지가 변두리 같았다(통영)' 등 유사성을 가지며, 대부분 부정적 인식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참여자의 회기에 대한 평가에서는 '서울 같지 않은 편안함(통영)', '회기의 고요함이 좋다(대전중통)', '물가가 싸고 사람이 적어서 좋다(해운대)'와 같이 긍정적 답변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첫인상과 현재 사이에 발생한 인식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해 '처음에는 서울의 변두리 같아 허름한 인상을 가졌으나, 오히려 조용한 분위기와 저렴한 물가 등에 편안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와 같은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또 장소자산으로서 캠퍼스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애교심이 형성되면서 동네 애착도 함께 형성'된다는 대전생물의 경우와 '학교 건물을 소개하는 것'과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벚꽃 핀 미대'를 언급한 대구, '학교 캠퍼스 건물에 대한 자부심'을 언급한 전주 등 여러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캠퍼스 경험을 반영해 '이 동네에 살면서 캠퍼스는 수업을 듣는 공간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동네를 외부인에게 소개할 때 학교 캠퍼스를 가장 먼저 꼽게 된다'와 같은 문항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장소애착 구성 요소에 따른 주제 별로 분류하여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4-3]은 활동지 문항 구성 내용이다.

[표 4-3] 활동지 문항 구성

장소애착 구성 요소	내용	문항번호
장소 정체성 관련 문항	애교심 때문에 이 지역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된다.	15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같은 학생이라는 동질감이 든다.	16
	자취가 기숙사 거주보다 내 집 같은 느낌이 강하다.	17
	첫 독립 경험이라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18
	현재 거주 공간이 내 집 같은 느낌이 강하다.	20
장소 의존성 관련 문항	주거지로서 학교에 가깝고 학생들이 살기에 좋은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2
	동네를 외부인에게 소개할 때 학교 캠퍼스를 가장 먼저 꼽게 된다.	4
	이 동네에 살면서 캠퍼스는 수업을 듣는 공간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5
	우리 동네에서 즐겨 찾는 산책코스가 있다.	6
장소 감정 관련 문항	처음에는 서울의 변두리 같아 허름한 인상을 가졌으나, 오히려 조용한 분위기와 저렴한 물가 등에 편안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1
장소 사회적 결속 관련 문항	단골 상점이 생겨 상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3
	지역 내 알바 경험이 지역사회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7
	통학하는 친구들 대비 이 지역에 사는 친구들끼리 더 친하게 지낸다.	12
	친한 친구들과 자취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13
자연선호 특성	주거지로서 공원 등 자연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	8
임시성 특성	학교 때문에 거주할 뿐, 언젠가 떠날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9
인간관계 특성	이곳에서 형성한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학교와 결부된 사람들이다.	10
	이 지역에 적응하는 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은 같은 과 선배이다.	11
	또래 이웃은 사귀는 것이 불편하거나 이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14
	지역주민들과 융화되지 못하거나 갈등이 있다.	19
일반 특성	고향은 휴식의 공간 서울은 치열한 일상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21
	추억이 있는 동네 상점이 자주 바뀌는 것이 아쉽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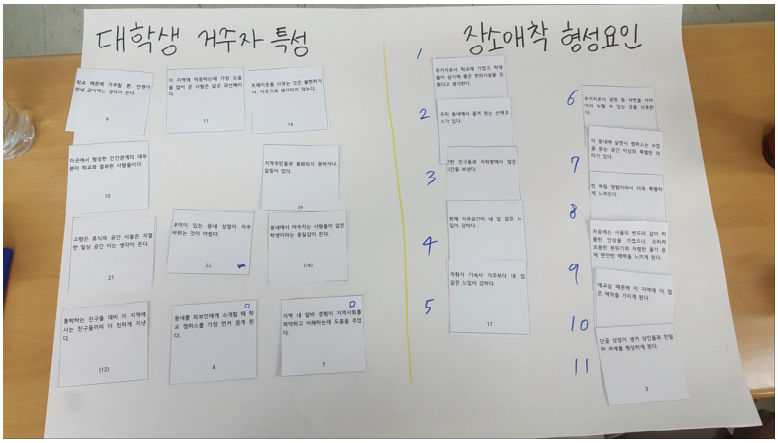
(2) 워크숍 1차 활동

1차 활동은 대학생 거주자들의 장소애착 형성 요인을 개념화하고, 각 요소 사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어떠한 경험 또는 인식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진 의미 위주 코딩을 인터뷰 참여자가 직접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

워크숍 1차 활동에서는 [표 4-3]과 같이 최종 확정된 22문항의 변수를 카드로 제작하여 장소애착 형성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즉 장소애착 형성에 영향을 준 설명 요인과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거주자의 특성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문항을 무작위로 배치한 후 참여자로 하여금 이를 각각 '애착 형성 요인' 구역 혹은 '일반적 특성' 구역으로 나누어 분류하도록 하였다.

장소애착 형성 요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경우 두 구역의 경계선인 중앙에 정렬하도록 하여 카드가 총 세 구역으로 배분된 활동지를 제작하였다.

[그림 4-1] 워크숍 1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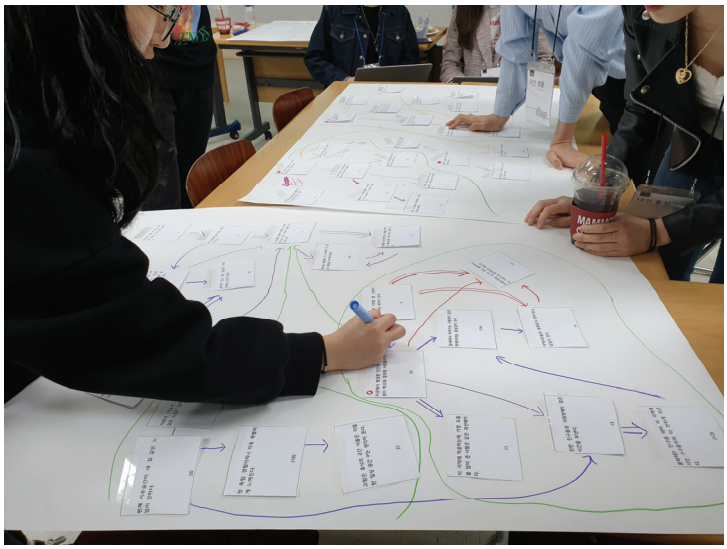
[그림 4-2] 워크숍 1차 활동 결과

1차 활동은 참여자 1명당 연구진 1명을 배정하여 활동을 보조하였다. 애착 형성 요인과 특성을 분류한 뒤, 참여자가 애착 형성 요인이라고 판단한 문항들을 애착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후 변수별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워크숍 전체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별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구성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판별한 문항은 장소 정체성 관련 요인인 평균 3.3위의 '20. 현재 거주 공간이 내 집 같은 느낌이 강하다'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장소 의존성 요소가 내포된 항목들이 상위권에 다수 분포했다(표 4-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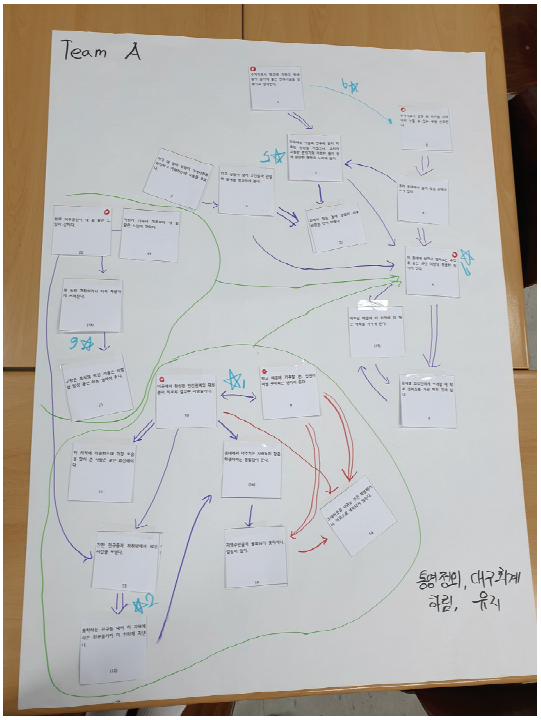
[표 4-4] 1차 활동 결과 요약

우선순위	영향 요인	우선순위 점수	관련 개념
1순위	현재 거주 공간이 내 집 같은 느낌이 강하다.	3.3	장소 정체성
2순위	이 동네에 살면서 캠퍼스는 수업을 듣는 공간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	3.75	장소 의존성
3순위	우리 동네에서 즐겨 찾는 산책코스가 있다.	5.25	
4순위	주거지로서 학교에 가깝고 학생들이 살기에 좋은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5.75	
5순위	처음에는 서울의 변두리 같아 허름한 인상을 가졌으나, 오히려 조용한 분위기와 저렴한 물가 등에 편안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6	장소 감정

(3) 워크숍 2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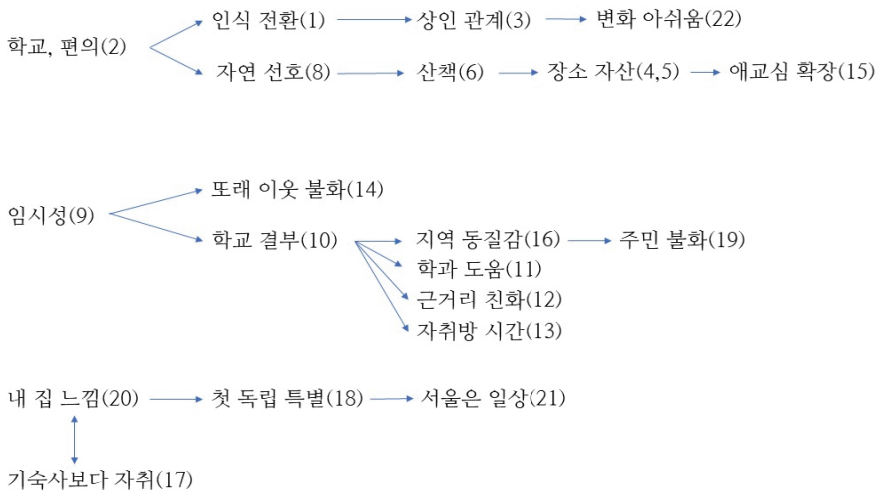
[그림 4-3] 워크숍 2차 활동



[그림 4-4] 워크숍 2차 활동 결과

2차 활동은 인터뷰 내용에서 추출한 [표 4-3]의 문항들의 상호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참여자 2명, 연구진 2명의 구성으로 총 4명이 하나의 조를 이루며, 총 2개의 조가 동시에 활동을 진행했다. 1차 활동과 동일한 22문항의 설명변수를 활용하였고, 참가자와 연구자가 협력해 각 경험과 인식 간의 논리적 관계를 찾아 마인드맵으로 그리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과, 선후 등 관계를 파악하고 그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조에서는 의미에 따라 먼저 유사하거나 연관성 있다고 판단한 문항카드를 모아 세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그룹 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참여자는 같은 권역 내 카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강한 연관이 보이는 카드 사이는 굵은 선 또는 이중선을, 약한 연관을 보이는 카드 사이는 얇은 선을 그려 표현했다. 추가적으로 각 경험들이 인과/선후관계에 있을 경우 원인에서 결과를 향하도록 화살표를 그려 표시해 주었다. 이때 하나의 카드에서 세 개 이상 가지를 뻗어 다른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 카드를 '중심 변인'으로 설정하고 별도로 빨간 점을 표기했다.

조별로 이루어진 관계 찾기 활동이 끝난 뒤, 모두 한데 모여 연구진의 진행하에 각 조에서 파악된 관계망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하였다. 또한 인과/선후에서 차이점이 보였다면 어떤 이유인지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2차 활동 참여자 전원의 합의를 얻어 [그림 4-5]와 같은 공통 관계망을 도출하였다. 공통 관계망에서 중심 변인은 3개가 지목되었다. 학교와 가깝고 편의시설이 갖춰진 기능적 특성을 설명하는 2번, 대학생 거주의 임시적 특성을 설명하는 9번, '내 집 느낌'의 장소애착을 설명하는 20번이 대표적인 중심 변인 사건으로 지목되었으며 총 9개의 의미 관계망이 포착되었다.



[그림 4-5] 워크숍 2차 활동 분석 결과 요약 도식

05. 대학생 거주자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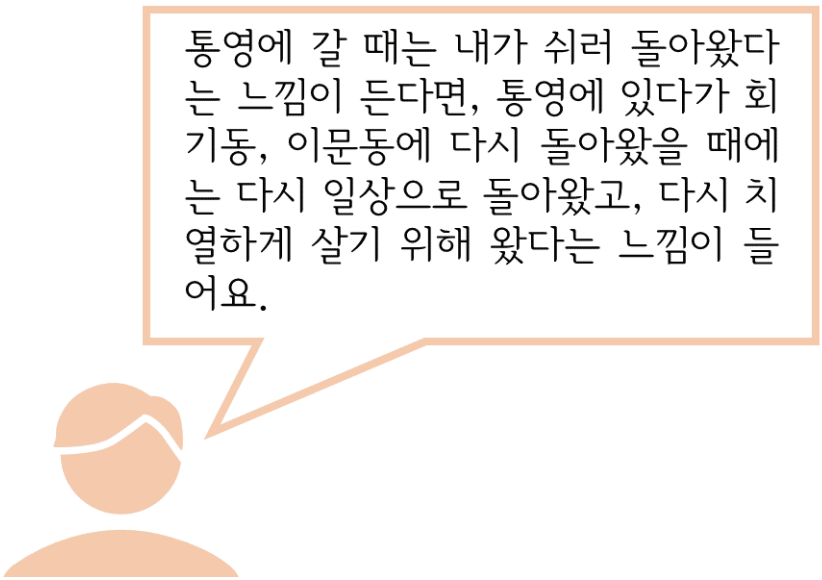
1_교육을 위한 임시 거처에 살다

대학생 단기 거주자의 장소애착과 주거 인식을 결정하는 기본 특성은 임시성이다. 주지하듯 서울로의 인구 유입에는 양질의 교육 기회와 일자리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경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대학 교육은 전국의 청년 인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최은영, 2014).

서울로 이주하는 학생들은 영구적인 정착보다는 평균 4~5년 과정에 달하는 대학 교육 과정 동안의 임시 거처를 구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의 자가 소유보다는 짧은 단위의 임대차가 선호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하숙보다는 전·월세 1인 원룸 자취가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주요 대학가 근처에는 비수도권 출신의 단기 전입자와 외국인 유학생, 대학 부속기관 근로자 등의 폭발적인 수요로 대규모의 원룸촌이 형성되어 있다. 주거학에서는 이와 같이 한곳에서 정착하여 사는 거주 방식이 아닌 일정 기간만 거주하는 형태를 일시적 거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 발달로 전통적인 시공간의 개념이 약화되면서 비동시성과 비고정성, 가설적인 일시성을 창출한 것으로 설명한다(Kwon, 2001). 현대사회에서 도시 1인 가구는 특정한 가치와 고착된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편의성과 신속성에 따라 즉각적인 환경의 변화를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대학생 거주자의 기본 특성으로는 임시성과 목적성을 꼽을 수 있었다. 이주의 제1동기가 대학인 이들에게 주거의 의미는 대학과 강력히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출신 전입자는 24개월 이상의 거주 이력과 높은 장소애착에도 불구하고 서울로의 이주 이전에 여전히 유년기를 보낸 지역을 대체 불가능한 '고향'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재의 대학가 거주를 대학생의 신분을 벗어남으로써 목적이 완수되면 자연스레 떠나는 곳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성과 근린 시설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학교와의 거리(입지적 조건)를 중요한 주거 선택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신세대의 주거 선택 요인이 교통과 교육, 직장과의 거리 등 입지적 특성을 중요시한다는 선행 연구 Jo(2004)의 요점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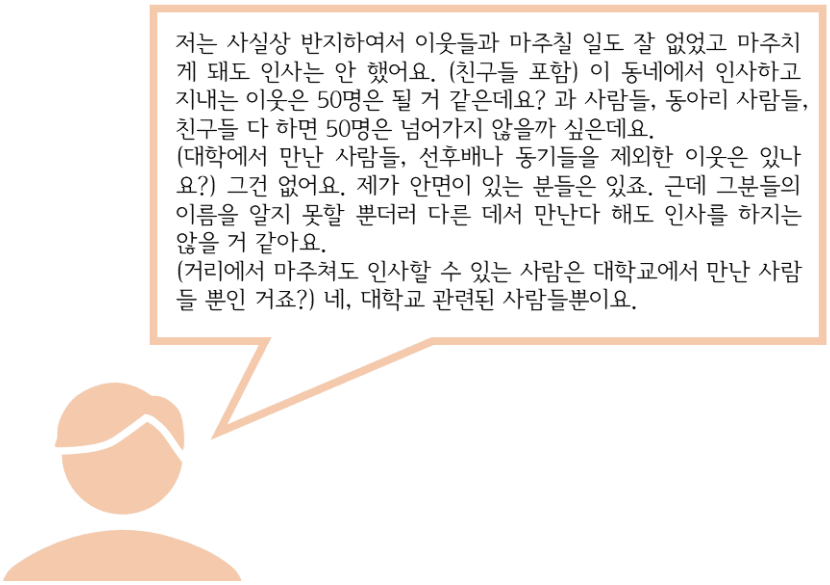
[그림 5-1] 연구 참여자 [통영]의 사례1

연구 참여자 [통영]은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했을 때와 다시 주거지로 돌아왔을 때”와 관련한 질문에서 고향으로 인지되는 통영과 현재 거주지가 주는 상이한 경험을 언급하였다. 고향 방문은 서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유와 포근함을 선사하는, 치열한 일상과 완전히 분절된 공간으로 인지되었다.

2_사회적 관계의 특성

1) 학교와 관련된 인간관계만 형성

임시성의 근본 특성 위에, 대학생 거주자들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대학 내 관계로 국한시키고 있었다. 경희대, 한국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카이스트 등 인접한 대학의 학생과 원주민 등 회기·이문 지역이 가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학과-학번-동아리로 대표되는 대학 내 관계에 결부된 인간관계만을 형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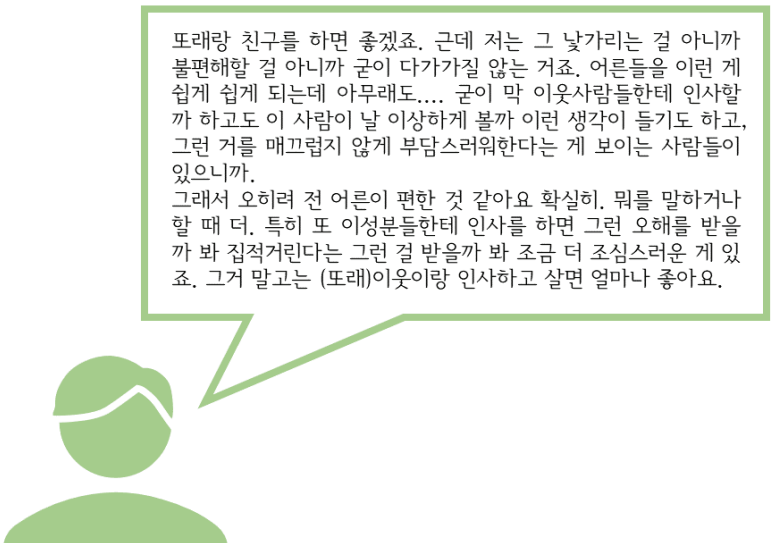


[그림 5-2] 연구 참여자 [통영]의 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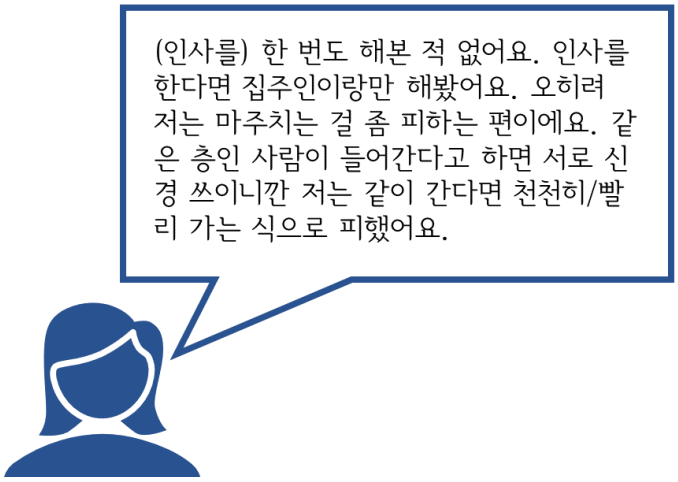
연구 참여 대학자 [통영]은 동네에서 인사하고 지내는 지인은 어느 정도 존재하였지만, 학과를 중심으로 형성된 선후배와 동기 등을 제외한 관계는 전무했다. 캠퍼스의 경계를 사실상 공유하고 있는 경희대와 한국외대의 경우 학생들의 주거지가 공통되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지역과 장소보다는 학내에서 형성된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2) 또래 이웃과의 관계 형성 꺼림

또 하나의 특성은 또래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꺼린다는 점이다. 대학가 원룸촌은 거주자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며 1인 가구임에도 불구,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적극적인 불호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대학촌이 보이는 동질성의 특성이 구성원들의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직접적인 관계 형성을 꺼리는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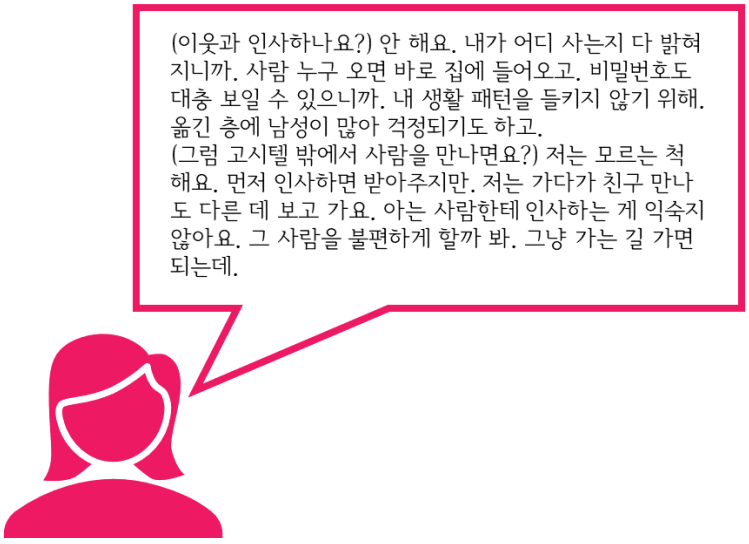
[그림 5-3] 연구 참여자 [전주]의 사례1



[그림 5-4] 연구 참여자 [해운대]의 사례

연구 참여자 [해운대]는 같은 원룸 빌딩 거주자 중에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전무하다고 답하였으며, 같은 층의 이웃이 함께 빌딩에 들어갈 경우 만남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전주]의 경우는 또래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 호감을 표시했으나 오해의 소지를 들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말하였으며, 오히려 이웃 관계의 형성 과정에서 대학생 또래 거주자보다 원주민(어른) 거주자가 편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또래 이웃에 대한 불호는 불안감과 범죄 우려 또는 신뢰 저하 때문이기보다는 이웃에 대한 불간섭과 프라이버시 존중을 일치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촌 거주지가 대부분 불법 방 쪼개기 등으로 건물 내 호실의 과도한 밀집도와 방음 미비로 열악한 프라이버시 환경을 가지고 있어, 반작용으로 평온하고 독립적인 주거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간절해졌기 때문에 또래 이웃에 대한 의도적인 무관심과 불간섭이 대학가의 문화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소애착 형성 요인에 대해 대학생 거주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의 네 가지 구성 요소 중 장소 사회적 유대(Place Social Bonding)는 애착도 상위 30% 집단, 상위 50% 집단, 전체 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은 영향력을 보였다. 한편 장소에 대한 기능적 연계와 관련된 장소 의존성(Place Dependence)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들의 장소애착 형성에 있어 이웃 관계와 같은 사회적 연결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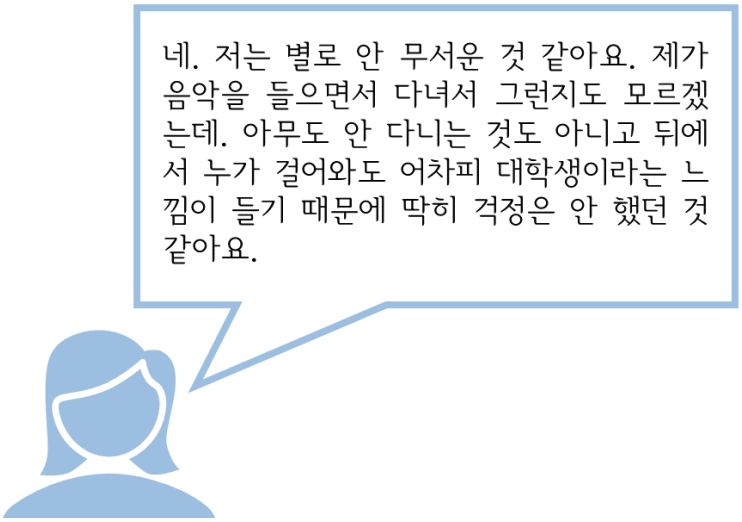


[그림 5-5] 연구 참여자 [대전생물]의 사례

3_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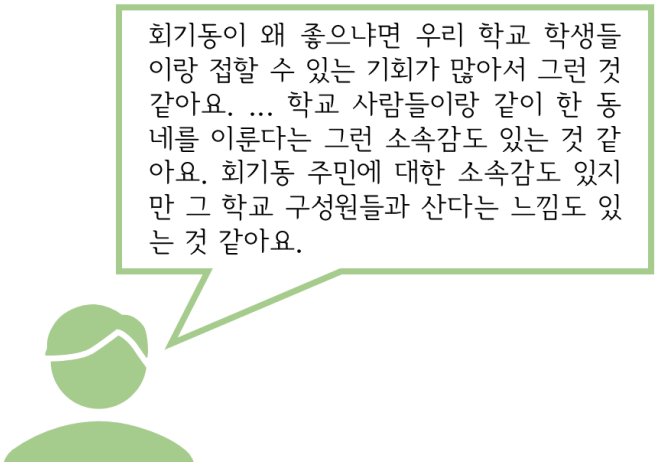
1) 지역 동질감을 느낌

대학생 거주자들은 회기·이문 지역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역의 대학생 거주자 비율이 높으므로 자신과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나이와 생활패턴, 사회경제적 지위가 동질한 집단일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그림 5-6] 연구 참여자 [대구]의 사례1

참여자 [대구]는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걷는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도 낯선 이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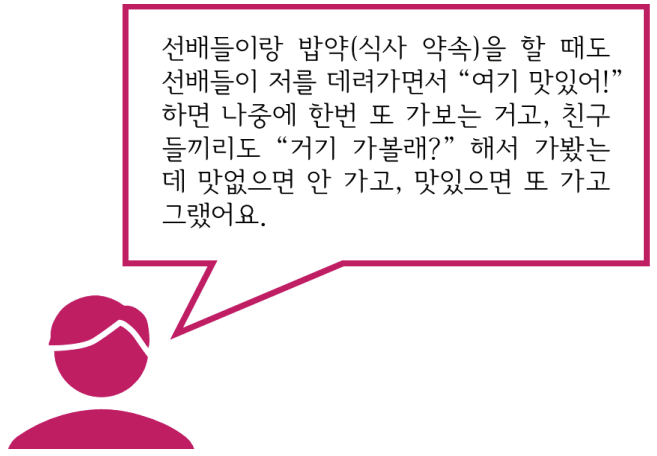


[그림 5-7] 연구 참여자 [전주]의 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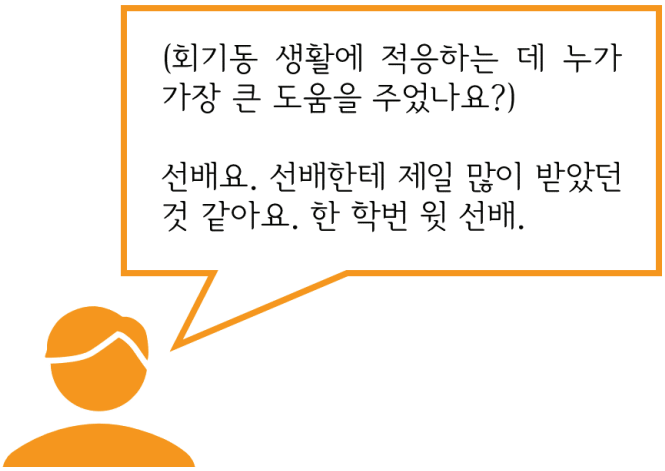
참여자 [전주]는 회기·이문 지역 거주에 대해 학교 사람들과 이웃으로 산다는 점을 지역의 장점으로 꼽았다. 학교에 갖는 소속감이 배후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애교심과 소속감,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혼재된 것으로 이해된다.

2) 주로 학과 선배들에게 적응의 도움을 받음

대학 입학 이후 회기·이문 지역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낯섦의 극복은 장소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적응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 '학과 선배'를 꼽았다.



[그림 5-8] 연구 참여자 [홍성]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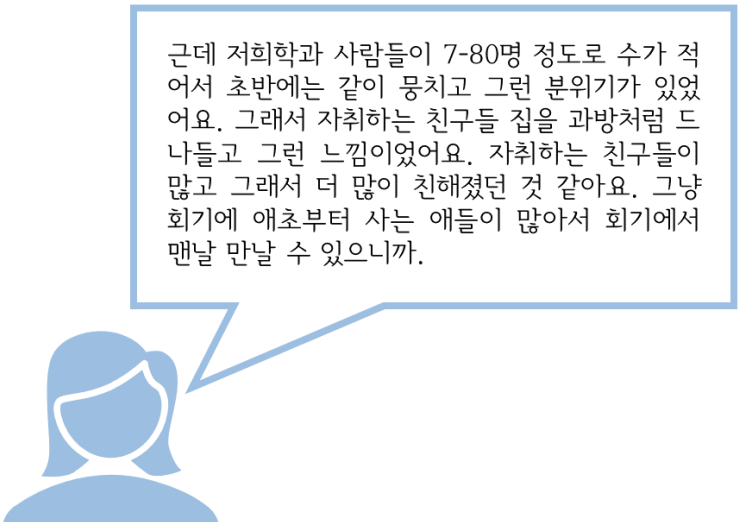
[그림 5-9] 연구 참여자 [부산]의 사례1

이러한 계기는 각 대학 학생자치기구와 학교 당국이 개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공이 크다. 대인관계 형성 기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 자치기구와 동아리인데, 이곳에서 선후배와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관계 형성의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이희백, 2002). 이렇게 학기 초반에 학과와 학번에 따라 형성하게 되는 또래집단은 전체 거주기간 동안 일상생활과 여가를 함께하면서 더욱 친밀해진다.

학과 선배가 회기·이문 지역에서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거주자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생활 반경 내의 근린시설을 탐색하고 지역에 적응하게 된다.

3)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친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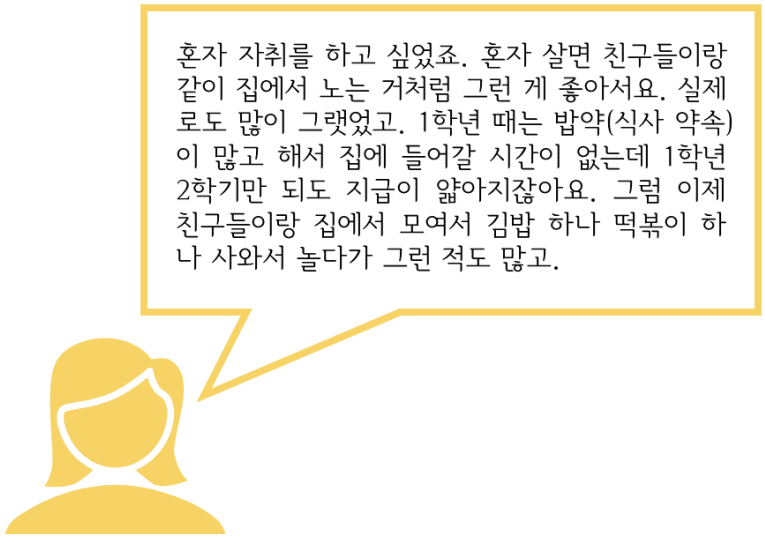
이주 초기에는 학과를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데, 그중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과 친밀해졌다. 회기·이문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란 경희대, 한국외대 캠퍼스를 둘러싼, 도보로 이동 가능한 주거 밀집 지역이다.



[그림 5-10] 연구 참여자 [대구]의 사례2

4) 자취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스로 벌어 충당하고 있는 거주자들은 높은 주거 생활비 때문에 여가생활에 추가로 지출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원룸에서 1인 독립주거를 꾸리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 친구와 일상을 함께하는 데 있어 자취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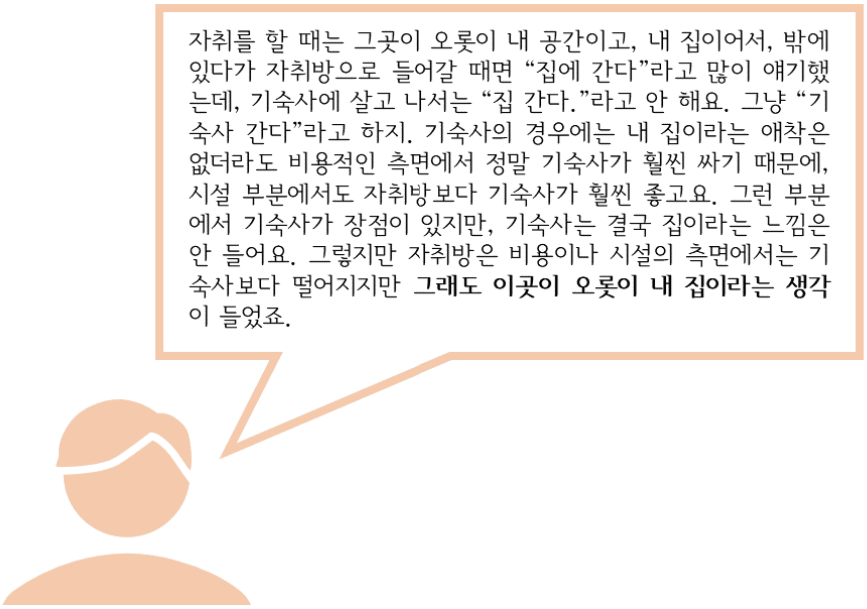
[그림 5-11] 연구 참여자 [충주]의 사례

06. 장소애착의 형성 요인은 무엇인가

1_주거지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

우리는 스스로 가장 의미 있는 장소를 '내 집', '우리 동네' 등의 표현을 통해 그 의미를 강조한다(최병숙 외, 2010). Hayward가 강조한 것처럼, 집은 자기 세계의 중심으로서, 자아정체성이 나타나는 곳, 개인화된 사생활의 장소로 개인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이경희 외 재인용, 1993). 집에 대한 애착은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장소와 지역에 대한 소속감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회기·이문 지역에 대한 높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대학생 거주자들 또한 거주지에 대한 높은 친밀감과 강한 소속감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집'을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주택 이상의 의미로 인식하고 안정감과 친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거주지를 "오롯이 내 집이라는 생각"(통영), "우리 동네, 정말 집같이 편안하다는 느낌"(대구) 등으로 언급했다. 또한 참여자 [창원]은 대학 생활 적응에 있어서 '집'에 적응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자아 정체감 성취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 생활 적응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Cross, et.al, 1974), 집에 대한 애착 형성은 장소 정체성을 형성하고 대학생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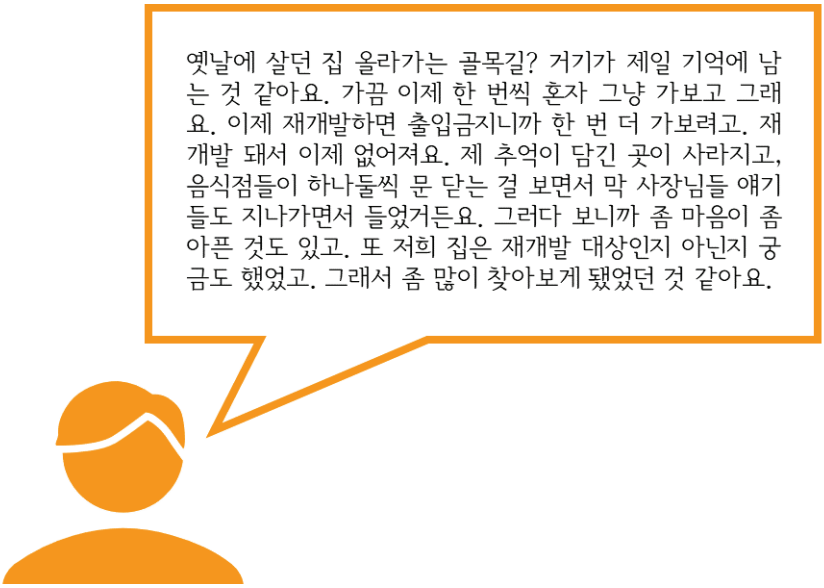
[그림 6-1] 연구 참여자 [통영]의 사례3

‘내 집 느낌’에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 [통영]은 거주 경험에 비추어 자취방과 기숙사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거주 유형에 따라 애착형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취방 거주 시에는 주거지에 소속감과 애착을 느꼈으나 기숙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대표적인 단기 거주 공간인 기숙사와 자취방은 고향집과 같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경합 관계에 있으며 잦은 이주, 짧은 거주 기간 등 임시 거주지로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자취방과 기숙사는 거주 기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김동근(2011)의 단기 주거의 장소애착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은 평균 15.2개월이며 기숙사생이 12.3개월, 자취생이 18.0개월로 자취생이 현재의 거주지에 더 오래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소애착이 시간의 경과에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숙사가 자취방보다 장소애착에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학생이 가지는 주거의 인식과 가치관, 주택 선택 시 선호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주거를 안전하고 정서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었다(Shin & Jo, 2014). 신화경·조인숙(2014)은 대학생의 주거 의미의 인식을 비교하여 ‘안전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

로 '정서적 공간', '사생활 보호 공간' 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대학생이 만족감을 느끼는 주거 형태는 물리적인 안정감과 동시에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숙사는 자취방에 비해 주거 밀도가 상당히 높아 사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17] 또한 기숙사 거주자는 기숙사 운영 자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점을 받는 등 주거의 자율성이 제약받게 되며 기숙사의 입사 시스템의 경우 입사생을 학기마다 성적과 소득 선발을 통해 다시 선발하여 새로운 방을 배정하는데 이는 기숙사 거주 학생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임시적 거주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6-2] 연구 참여자 [부산]의 사례2

참여자 [부산]은 회기·이문 지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이전에 거주한 집 주위의 골목길을 꼽았다. 이는 생애 처음으로 가지게 된 독립된 장소 '집'에 대한 애착이 주거지로서의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골목이나 식당 등 근린 시설과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 참여자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까지 이전 주거지 근처를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인식하고 방문하고 있으며 그 공간이 이문 지역의

17) 기숙사의 평균 거주인은 2.5명(본인 포함)인데 비해 자취방에서는 1.6명으로 기숙사가 보다 동거인이 많게 나타났다. 방 크기가 기숙사가 오히려 더 작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거 밀도는 기숙사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김동근,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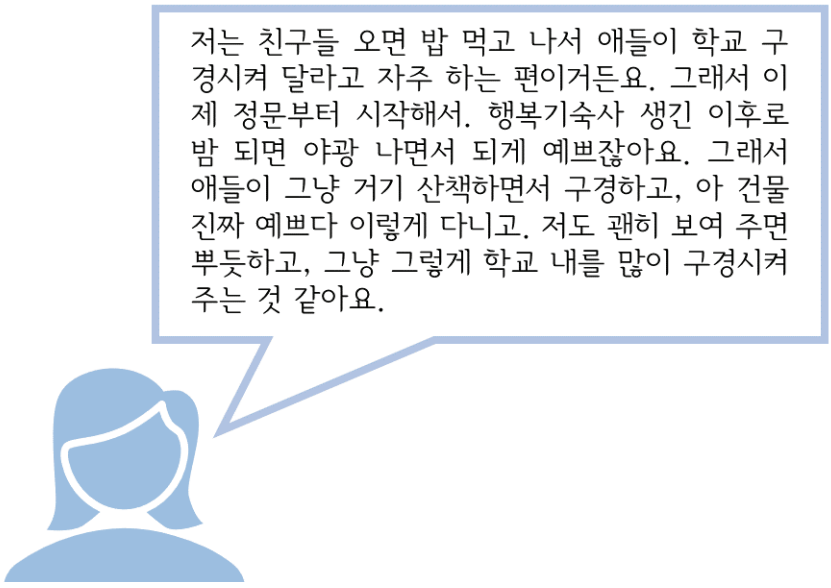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는 등 참여자가 '집'을 중심으로 장소에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개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대학생 단기 거주자의 경우도 자신이 거주했던 장소에 애착이 형성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에 '주민'으로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_근린 환경에 대한 장소자산적 인식

1) 회기·이문 지역의 캠퍼스와 관련한 특성

연구 참여자 [대구]의 거주 경험에서 회기·이문 지역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학교를 구경시켜 준다는 언급을 통해 회기·이문 지역에서 대학 캠퍼스가 유·무형적으로 다양한 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역 내 대학생 거주자들 또한 인지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캠퍼스가 그저 본래의 교육 공간으로서 재학생만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구경하기에 예쁜 곳이자 외부인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곳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회기·이문 지역의 정체성이 '대학'이라는 점과 지역 내 대학 캠퍼스가 장소자산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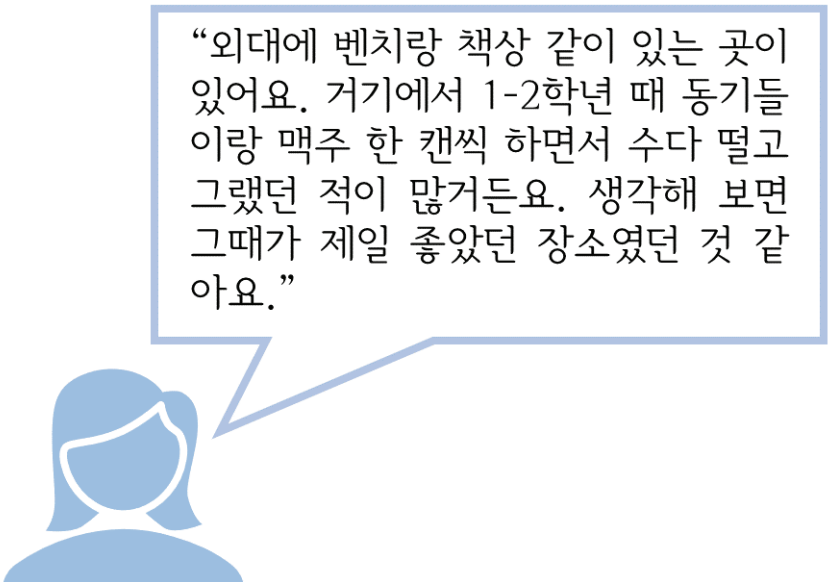
[그림 6-3] 연구 참여자 [대구]의 사례3

일반적으로 장소자산은 한 장소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뜻한다(신현식·오훈석, 2016). Kotler 외(2002)는 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장소의 요소 중 긍정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장소의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거나 혹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서 개발하였을 때 매력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장소자산으로 설명하였다. 즉, 어떠한 장소의 단순한 목적이나 역할·기능 외에도 장소가 지니고 있거나 만들어

내는 다양한 긍정적 요소들을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자산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회기·이문 지역의 대학생 거주자들이 캠퍼스를 장소자산으로 인식하고 향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에게 경희대와 한국외대의 캠퍼스는 단순히 수업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소개의 대상이나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장소의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며, 긍정적인 경험 또는 느낌이 형성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캠퍼스에 대한 장소자산적 인식을 가지는 회기·이문 지역의 대학생 거주자들은 결과적으로 회기·이문 지역이라는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렇듯 캠퍼스를 비롯한 대학 주변 지역에 대한 장소자산적 인식은 회기·이문 지역의 대학생 거주자들에게 강력한 애착 형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4] 연구 참여자 [대구]의 사례4

또한 회기·이문 지역에서 대학 캠퍼스는 공원이자 청춘의 휴식처로 작용한다. 이러한 데는 회기·이문 지역에 위치한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 자체가 만들어 내는 다양한 이미지와 장소적 기능 때문이기도 하나, 회기·이문 지역의 대학가 근처에 마땅한 여가·휴식 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주거지에 인접한 근린공원은 도시 지역의 대표적인 휴식 시설이나, 회기·이문 지역이 속해 있는 동대문구의 근린공원 면적은 약 91만㎡로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20번째에 그쳤다. 절대적인 면적뿐만 아니라 주민 1인당 근린공원 면적을 보았을 때도 동대문구는 불과 2.6㎡에 불

과하였다. 이는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19번째에 그치는 적은 수치이며, 서울 시민 1명이 평균적으로 누리는 공원녹지 면적인 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넓이이다(표 6-1 참고).

이렇듯 회기·이문 지역 내에는 여가와 휴식의 활동을 할 여건이 부족하며, 또한 여가·휴식 활동을 대체하는 다른 활동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회기·이문 지역의 근린 환경을 이용하는 계층이 대부분 경희대와 한국외대에 다니는 대학생들, 그리고 20대 대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모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대학생들이 대학 인근에서 매번 소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회기·이문 지역 근린 환경을 이용하는 주요 계층의 특수성과 공원녹지 면적이 부족한 동대문구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회기·이문 지역 내에 위치한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가 지니는 장소자산으로서의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회기·이문 지역에서 경희대와 한국외대의 대학 캠퍼스는 해당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대학 인근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 기능이 부족한 근린 환경의 한계를 보완하는 좋은 근린시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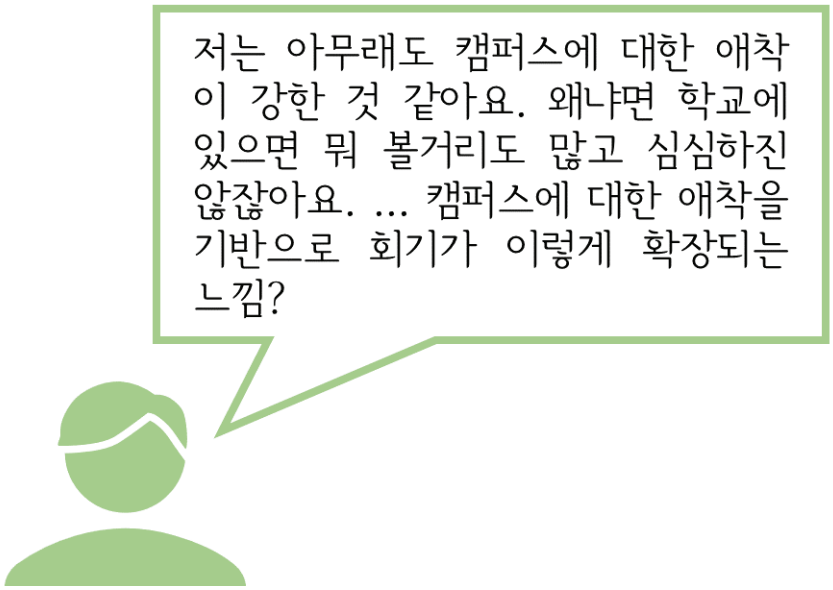
[표 6-1] 서울 내 자치구별 주민 1인당 근린공원 면적 순위표(2017년 기준)

(단위: 천㎡, 명 ㎡/명)

순위	행정구역	근린공원 면적[18]	주민 수[19]	1인당 근린공원 면적[20]
	전국	624,002.1	51,778,544	12.5
	서울특별시	45,156.2	9,857,426	4.58
1	종로구	2,511.8	154,770	16.23
2	중구	1,176.7	125,709	9.36
3	마포구	2,859.7	374,915	7.63
4	동작구	2,866.6	396,217	7.23
5	강북구	2,049.7	324,479	6.32
6	은평구	2,690.4	486,794	5.53
7	강서구	3,031.3	601,691	5.04
8	강남구	2,580.2	556,164	4.64
9	성북구	2,003.2	444,055	4.51
10	서대문구	1,322.2	312,800	4.23
11	강동구	1,820.4	436,223	4.17
12	서초구	1,757.6	441,102	3.98
13	성동구	1,083.1	304,808	3.55

순위	행정구역	근린공원 면적[18]	주민 수[19]	1인당 근린공원 면적[20]
14	중랑구	1,311.6	408,226	3.21
15	도봉구	1,003.6	344,166	2.92
16	노원구	1,535.9	554,403	2.77
17	용산구	607.2	229,161	2.65
18	구로구	1,079.0	410,742	2.63
19	동대문구	913.1	350,647	2.60
20	송파구	1,583.6	664,496	2.38
21	양천구	1,115.9	471,154	2.37
22	영등포구	583.2	368,550	1.58
23	광진구	560.6	357,703	1.57
24	관악구	400.5	503,297	0.80
25	금천구	39.2	235,154	0.17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원 통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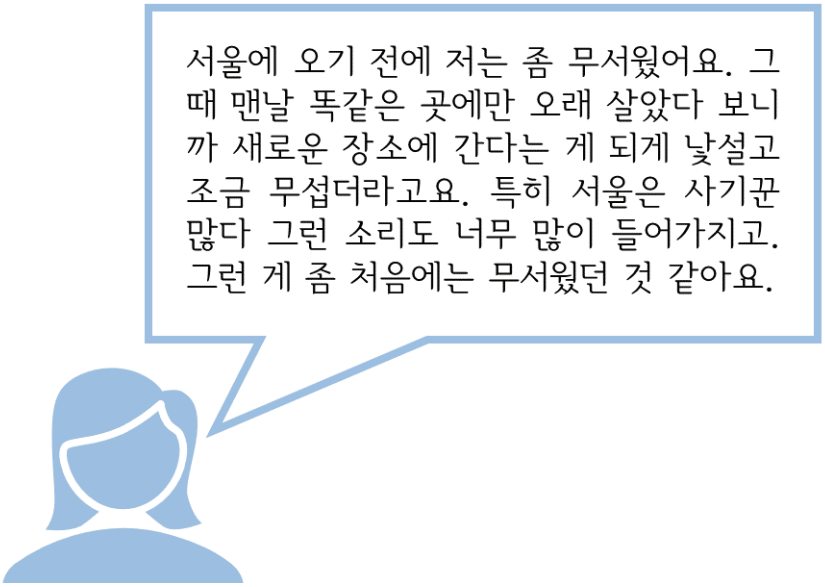
[그림 6-5] 연구 참여자 [전주]의 사례3

18)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린공원'의 면적.
19) 주민등록인구 기준.
20) 근린공원 면적 / 주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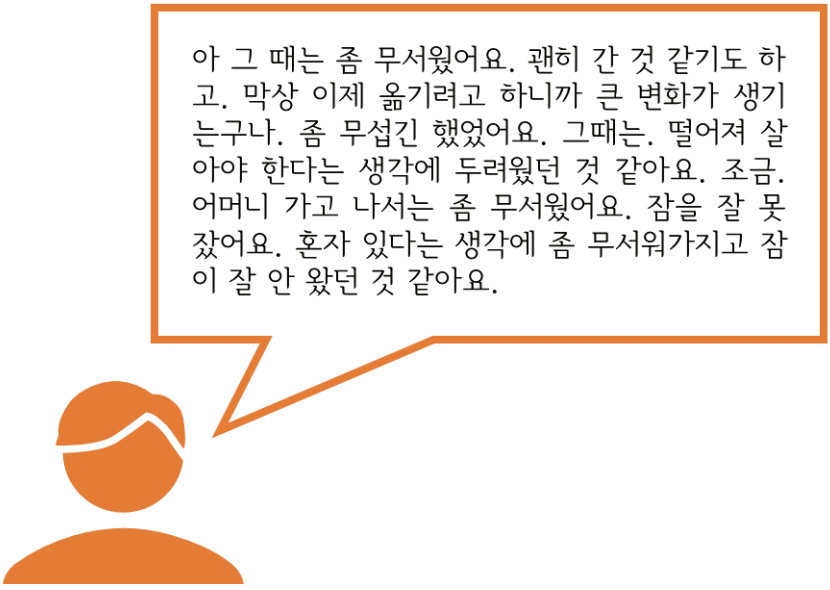
연구 참여자 [전주]의 거주 경험은 대학 캠퍼스에 대한 자신의 애착을 언급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캠퍼스를 기반으로 애착이 확장되는 식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연구 참여자 [전주]에게 경희대학교 캠퍼스에 대한 애착은 결과적으로 경희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회기·이문 지역의 애착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회기·이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캠퍼스 자체에 대한 애착도나 애교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연구 참여자 [전주]가 캠퍼스에 애착을 갖게 되는 요소를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대학생 거주자가 대학 캠퍼스에 갖는 장소자산적 인식이 드러난다. 연구 참여자 [전주]에게 대학은 좋은 볼거리이자 즐길 거리로, 연구 참여자 [전주]는 경관의 측면에서 캠퍼스의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부터 캠퍼스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회기·이문 지역의 대학생 거주자들에게 경희대와 한국외대의 캠퍼스는 지역의 중심이자 곧 정체성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의 출발점이다. 이와 함께, 경희대와 한국외대의 캠퍼스는 수업을 듣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즉 회기·이문 지역 대학생 거주자들에게 장소자산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회기·이문 지역에 대한 장소애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대학 캠퍼스에 대한 장소자산적 인식은 많은 대학생 거주자들에게서 형성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범위가 더 넓은 회기·이문 지역의 장소애착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_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림 6-6] 연구 참여자 [대구]의 사례5



[그림 6-7] 연구 참여자 [부산]의 사례3

비수도권 출신 대학생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대학 진학 이전에 서울 방문 경험이 없거나 짧은 방문 경험이 있는 정도였다. 상경하기 이전의 느낌에 대해 참여자 [대구]는 대학 입학 전 '서울살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참여자 [부산]은 상경 전 커다란 변화에 무서움을 느꼈으며 부모님이 떠난 자취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수도권 출신 대학생에게 서울은 생애 첫 독립지라는 설렘과 함께 두려움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대상이다.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하게 된 비수도권 학생들의 경우 이곳에 첫 독립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그림 6-8]에서 각 참여자들의 서울에 대한 인식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서울에 대해 '세련되고 멋있는 곳', '발달되고 번화한 도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서울에 대해 '로망', '환상', '동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서울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들이 상상하는 서울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곳으로는 명동, 신촌, 한강 등을 꼽았다. 즉, 비수도권 출신 대학생에게 서울은 생애 첫 독립 주거지이자 환상의 도시이다. 하지만 회기·이문 지역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서울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장소로 오히려 서울에 대해 가진 환상과는 정반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강남 거리[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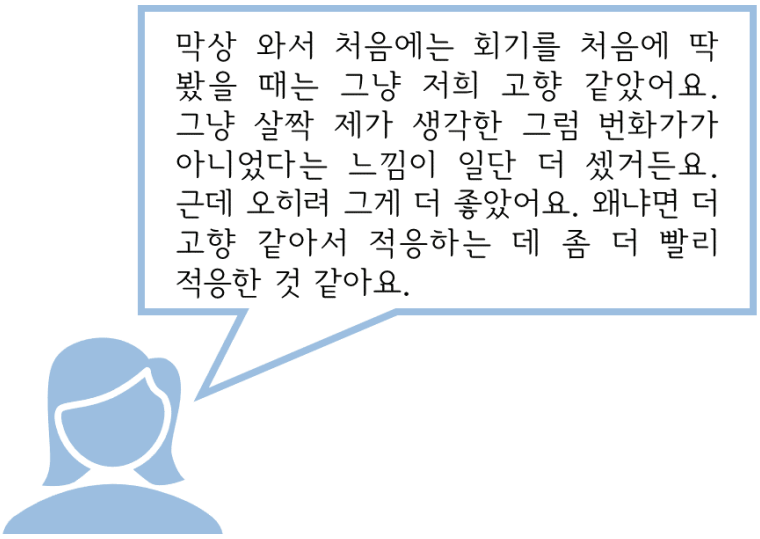
이문동 사진[22)]

[그림 6-8] 참여자들이 생각한 번화가의 모습과 회기·이문 지역의 모습

회기·이문동의 첫인상에 대해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회기·이문동을 '서울의 변두리 같은

21) 사진 출처: Gangnam Street Crossing, by David, CC-BY-NC-SA 라이센스.
22) 연구자 직접 촬영(2019.05).

느낌', '낙후되고 어두운 장소'로 묘사하였고 이에 대해 실망감을 가지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였다.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던 서울에 대한 환상과 구별되는 회기·이문 지역의 모습은 참여자들의 초기 장소애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대구]와 [충주]의 경우는 회기가 자신의 고향과 비슷한 풍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회기를 익숙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편안함을 느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장소 감정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9] 연구 참여자 [대구]의 사례6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회기·이문 지역의 첫인상은 대부분 서울 내의 다른 대학가와 달리 상권이 작고 낙후된 외관에 대한 평가라 볼 수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점은 참여자들이 회기·이문 지역에 대해 가진 부정적인 평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기·이문 지역만의 장점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첫인상에서 회기를 홍대, 신촌 등 다른 대학가와 비교하였을 때 상권이 작고 놀이 시설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회기·이문 지역을 주거지보다는 여가 장소나 유흥지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대학생 거주자들이 회기를 '주거 공간'으로 인식하며 인식의 전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안정성(범죄, 화재), 쾌적성(소음, 프라이버시 보호, 조망권), 편의시설, 교통 환경, 자연환경 등을 변수로 정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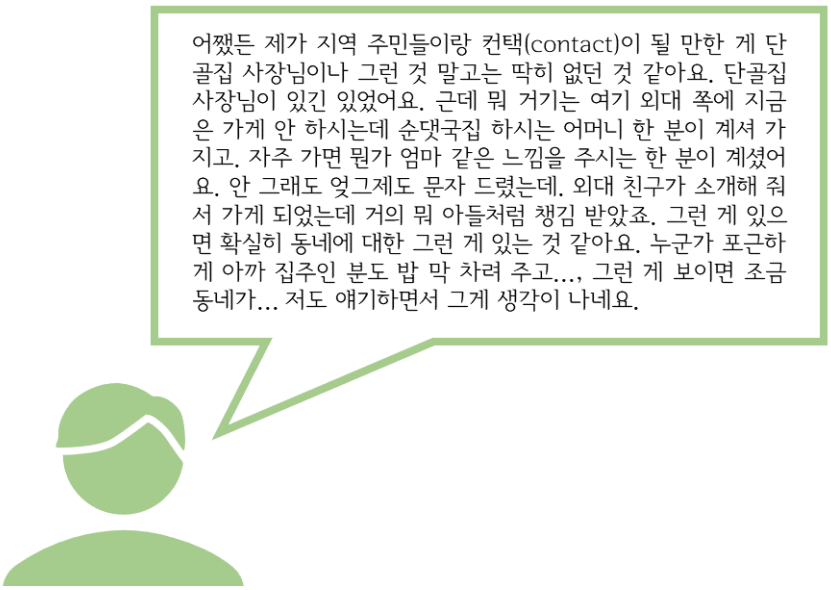
대학생들의 이상적인 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이민아 외, 2017) 결과에 의하면 프라이버시와 함께 소음 등의 쾌적성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결과는 사생활 보장과 쾌적성(통풍, 환기, 방음, 채광)이 중요하게 강조된 An et al.(2009)와 An et al.(2009), Ju and Kim(201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기·이문 지역이 다른 대학가보다 상권이 작다는 점을 오히려 유동인구가 적고 조용하다는 장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회기를 주거 환경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회기가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고 좋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장소에 대해 편안함, 행복함 등 개인이 장소와 공유하는 정서적 반응인 장소 감정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회기의 장점인 '조용함', '적은 유동인구' 이외에도 참여자들이 언급한 회기의 장점으로는 학생 거주에 적합한 근린시설을 갖췄다는 점,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싸다는 점, 학교 인근지역으로 등하교 시 편리하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참여자 [통영], [해운대], [홍성]은 주거지 근처에 카페나 코인 노래방, 음식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회기가 다른 대학가에 비해 상권이 작다 하더라도 대학가의 특성상 일반 주거지와 달리 모든 공간에 학생들에게 적합한 상점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참여자들은 고향과 비교하였을 때 회기를 더욱 편리한 장소라고 인식한다. 이를 장소 의존성 측면에서 분석하면 회기는 쇼핑시설이나 영화관 등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학생들이 일생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일반적 욕구를 충족하기 충분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_사회적 유대의 영향력은 낮은 편

학생 거주자들의 장소애착 형성 과정에서 대인적 요소, 즉 장소 사회적 유대 관련 요소의 영향력은 관련 영향 요인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대학생 거주자의 특성에 관해 논한 것처럼, 임시성의 근본 특성에 따라 또래 이웃에 대한 비선호와 학교와 결부된 인간관계로의 집중이 나타나게 된다. 대인적 요소의 미미한 영향은 적응과 생활 전반에 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웃 관계보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기 및 선후배 관계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전주]가 보여 주듯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응에 도움을 얻는 사례도 일부 존재하나, 그것이 애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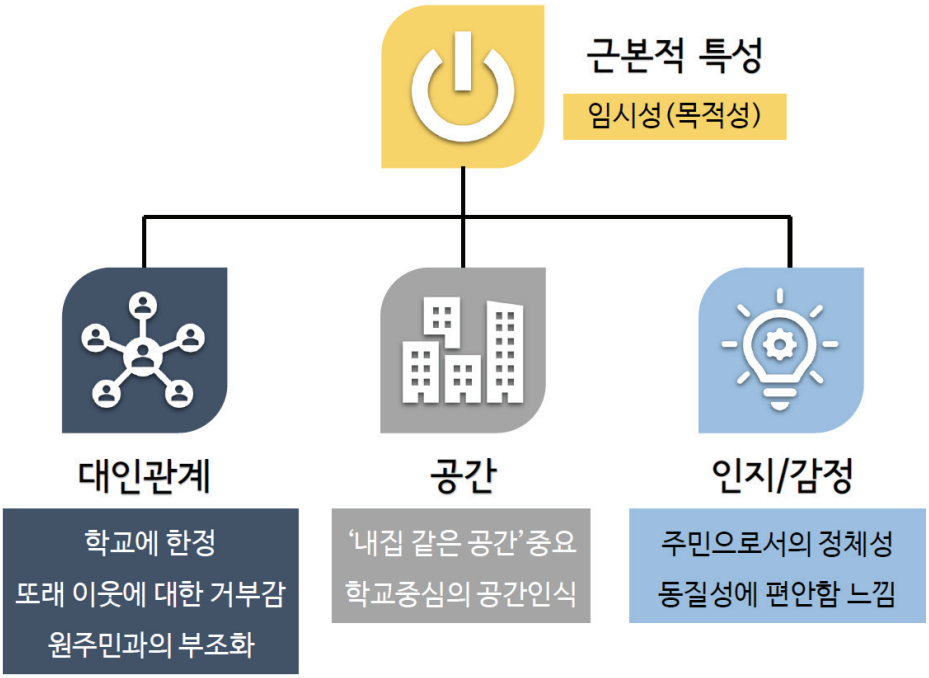


[그림 6-10] 연구 참여자 [전주]의 사례4

07. 결론

1_종합: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서울 외의 타 시·도에서 전입한 대학생 단기 거주자들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지니는 일반적 특성과, 그 특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애착을 형성하는지를 연구했으며 연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그림 7-1 참고).



[그림 7-1] 대학생 단기 거주자의 특성

대학생 단기 거주자들의 근본적인 특성은 그들의 주거가 대학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에 지금 자신의 주거를 장기적인 거주 또는 정착보다는 대학 교육 과정을 마치기까지의 임시적인 거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절대적이고 우선되는 동기는 대학을 다니기 위한 것으로, 대학을 마치면 거주의 목적이 완수되어 이후에 자연스레 떠날 공간으로 인지한다.

대학생 단기 거주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폐쇄적이고 단순한 편으로, 대인관계가 주로 대학이라는 공간적 범주 안에 한정되어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학생 거주자의 비율이 높기에 낯선 사람도 자신과 같은 대학생이거나 비슷한 지위의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지역에 대한 동질감과 함께 소속감을 느낀다. 또한 지역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주로 학과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는 등 지역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대학 내 인간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생 단기 거주자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대학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대학으로부터 비롯되는 동질감과 소속감이 지역에 대한 동질감과 소속감으로 쉽게 이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단기 거주자들의 이러한 학교 중심의 폐쇄적인 인간관계 특성은 한편으로는 또래 이웃과의 관계를 선호하지 않고, 원주민과의 융화를 방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 단기 거주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느끼는 사회적 유대감은 약하지만 대학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대학생 단기 거주자들에게는 장소 의존성 유관 경험이 모든 주거 유형에서 가장 강력한 장소애착 형성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본인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정도와 해당 지역이 본인에게 특별한 정도가 장소애착의 정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회기·이문 지역의 경우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에 대한 장소자산적 인식과 회기·이문 지역에 부정적이던 첫인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선호되는 주거지로 느끼게 된 인식의 전환을 통해 드러났다. 이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수록, 그리고 지역이 자신에게 주는 기능을 보다 넓게 인식할수록 상당한 장소애착이 형성됨을 보여 준다.

대학생 단기 거주자들의 장소애착 형성에는 거주의 유형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학생 단기 거주자들은 그들이 가지는 임시적인 거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내 집 같은 공간'과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집에 대해 주거 기능 이상의 안정감과 친밀감을 기대한다. 이러한 주거지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이 거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학교 기숙사보다는 자취의 형태로 거주할 때 더 '내 집 같은 느낌'을 받으며 장소애착을 형성하는 데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장소애착 요소인 장소 정체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자취의 경우도 다른 장소애착 요소들과는 달리 장소 사회적 유대는 기숙사에 비해 낮았으며 자취를 비롯해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장소 사회적 유대가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대학생 단기 거주자의 임시성과 거주의 목적성에 기반을 둔 또래 이웃 기피 성향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2_장소애착 형성 요인과 정책 제언

1) 캠퍼스타운 정책

(1)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개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16년 '청년특별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대학의 인적·물적 역량(자원)과 지역의 상생협력을 통해 서울의 52개 대학가를 창업육성 중심으로 주거 안정화, 문화 특성화, 상권 활성화, 지역 협력을 함께 이루어 창업 일자리 중심의 창조적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인재 청년들이 머무르는 대학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23]

사업의 추진 근거는 '캠퍼스타운 조성 계획'(서울특별시장방침 제78호)과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24] 당초에는 추진 계획의 이름으로 일종의 시정 계획 형식으로만 시작되었으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8년에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에 있어 정책적 근거와 함께 법적 근거 또한 확보하게 되었다.

캠퍼스타운 사업의 유형은 '종합형(지역창조형)'과 '단위형(프로그램형)'으로 나뉜다. 종합형의 캠퍼스타운은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상권·지역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활력증진 사업을 진행하며, 단위형의 캠퍼스타운은 대학별 특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활동을 증진하는 단위사업을 진행한다(표 7-1 참고).[25]

[표 7-1]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유형별 특성

종합형(지역창조형)	단위형(프로그램형)
① 지역 및 도시차원에서 미치는 파급효과 큰 대상지 ② 대학과 주변 노후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③ 일자리 창출, 상업활성화 등 종합적인 목표 달성	① 대학의 지역중심 기능이 비교적 미약한 지역 ② 비물리적 컨텐츠 중심의 사업 ③ 일자리 창출, 상업활성화 등 부문별 특성화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캠퍼스타운조성단), 2017년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 실행계획, 2017, p. 2.

---

23) 서울특별시, 2018,「민선 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서」, p. 193, 19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캠퍼스타운조성단), 2018,「2019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 계획」, p. 1.

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캠퍼스타운조성단), 2018,「2019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 계획」, p. 1.

25) 서울특별시, 2018,「민선 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서」, p. 193.

여기서 종합형과 단위형의 캠퍼스타운들은 대학밀집도 또는 대학 간의 인접도와 유사성에 기반을 두어, 종합형의 캠퍼스타운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캠퍼스타운 중심발전축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대학과 지역 간 연계가 강한 대학을 중심으로 종합형 캠퍼스타운을 조성하여, 이를 권역별 지역핵심 거점으로 두는 캠퍼스타운 중심 발전축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한다(중심형 캠퍼스타운을 거점으로 클러스터 내 단위형 캠퍼스타운들과 연계). 현재 '캠퍼스타운 중심 발전축 6개소 클러스터 조성(안)'에 따르면 조성을 추진하는 클러스터는 총 6개인데, 각각의 클러스터들은 아래와 같다.

[표 7-2] 캠퍼스타운 중심 발전축 클러스터 및 클러스터별 구성 대학

클러스터명	중심대학	구성 대학
태릉·석계권	광운대	광운대, 삼육대, 인덕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안암·회기권	고려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한국외대, 한예종
성수·화양권	세종대	세종대, 한양대, 건국대
상도·흑석권	중앙대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신촌·홍대권	(종합형 공모 예정)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도심·대학로권	(종합형 공모 예정)	성균관대, 동국대, 한국방송통신대, 한성대

출처: 서울특별시, 민선 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서, 2018, pp. 193~203.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특성은 청년들의 문제와 낙후되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문제를 상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이다. 사업의 영역은 창업 육성, 상권 활성화, 주거 안정, 지역 협력, 문화 특성화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결국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따라서 서울 내 33개의 대학이 참여하여 각각의 사업을 집행하는 형식이므로 우리 연구에서는 캠퍼스타운 전반에 걸쳐 평가하기보다는 단위 사업 중에 대학생의 장소애착 형성과 연관된 사업을 선택하여 대학생들의 주민 만들기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하겠다.

(2) 우리 동네 만들기의 관점에서 바라본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본 연구에서 대학생 거주자가 장소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거주자들은 이웃 관계를 통해 동네에 애착을 느끼게 되기보다 오히려 내가 사는 동네에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지고 내가 좋아하는 상점이 있는지가 동네에 애착을 가지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가의 근린 환경 개선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대학생 거주자의 장소애착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대학으로는 1단계 경희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서울대학교, 인덕대학교가 있고, 2단계 명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가 있다.

[표 7-3] 상권 활성화 사업 시행 대학별 주요 사업 내용

구분	대학명	주요 내용
상권 활성화	경희대학교	① 공유형 상점 운영을 통해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② 청년 상인 발굴·육성
	동양미래대학교	① 대학 특성인 디자인을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② 구로 지역 소상공인 대상 기술 자문 및 창업 지원
	서울대학교	① 서울대 인적 자원을 활용한 녹두거리 상권 활성화 ② 서울대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지원
	인덕대학교	① 대학 문화, 공연 등을 활용한 국수거리 상권 활성화 ② 창업 페스티벌을 통한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이 중에서도 본 연구의 지리적 범위와 일치하는 경희대학교를 사업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희대학교 상업 활성화는 공유형 상점 운영을 통해 추진되는데 현재까지 공유 상점 3호까지 출점하였다.

상점 1호는 전통 찻집 '녹원'으로 학생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상점 2호는 '독립식당', '술래잡기양조장', '배지앙', '사가요'가 하나의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상점 3호는 '진키친', '헬로말' 등 2호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공유형 상점 1호점인 '녹원'이다. 원래 '녹원'은 경희대 정문 앞에서 27년간 영업을 이어오다 2016년 12월 경영난으로 폐업했던 카페였으나, 대학가를 창업 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재건 사업이 진행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 받아 공유형 상점의 형태로 2018년 9월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다. 공유형 상점으로 운영이 되면서 실내 인테리어, 상품 디자인, 마케팅, 메뉴 개발 등 다양한 부문을 총 9명의 학생들이 맡아 가게를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주도로 재건한 상점을 계속해서 학생들이 물려받아 직접 운영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6]

출처: 황재하, 2018.11.19., "경영난에 문 닫은 30년 전통 학교 앞 찻집 되살려 낸 대학생들", 한경닷컴.

[그림 7-2] 경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사례: 공유형 상점 1호점(녹원) 전경

본 연구에서 회기·이문 지역에 대한 단점과 장점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낙후된 상권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동시에 상권이 발달한 신촌과 홍대에 비해 사람이 적고 조용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이러한 이유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회기 지역에 상권이 빠르게 형성되는 것을 단점으로 인식하고 애착 형성에도 부정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녹원을 직접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장소애착 형성을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성은 지역의 상권 확장에만 매몰되어 대학가 상권을 대형 상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지역주민과 대학생 거주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지역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상점들을 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희대학교 공유상점 1호점은 경희대생들의 추억의 공간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주거 정책 평가 및 제언

학업과 취업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20대는 서울의 인구 유출 경향에 대한 유일한 반례이다. 이러한 인구이동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비수도권 지역과 서울의 임대료 격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주로 지적되었다.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청년의 주거 빈곤 문제가 대두되고,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의 열악한

26) 황재하, 2018.11.19., "경영난에 문 닫은 30년 전통 학교 앞 찻집 되살려 낸 대학생들", 연합뉴스.

주거 환경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학생 거주자의 경우 학자금과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 충당하는 것이 몹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성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표 7-4]와 같이 대학생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표 7-4] 대학생 대상 주거 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주체	주요 내용
신규 공급	행복주택	중앙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택공급, 시세의 60~80%
	행복기숙사		대학생 공공주거복지 실현 목적
	사회적주택		쉐어하우스형. 졸업 후 2년 이내 취준생 포함 5년 이내 사회초년생 대상. 시세의 50% 이하
	희망하우징	서울	대학생 대상. 저렴한 주택 공급. 시세의 30%
	역세권2030 청년주택		역세권에 주택 공급. 시세의 60~90%.
기존 주택 활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중앙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시세의 80%
	청년전세임대		타 시군출신 대학생 및 졸업 2년 내 취업준비생 주거 독립 지원
	한지붕 세대공감	서울	신혼부부 임대 보증금 지원. 지역별 차등, 저리대출
	쉐어형 기숙사		고시원, 숙박시설 등 매입, 리모델링하여 1인 청년에 공공임대로 공급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빈집 리모델링 후 6년간 청년층 등에 공급. 시세의 80%

국토연구원(2017)에서 발췌 및 재구성.

주요 사업대상에 대학생이 포함되었을 경우,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 정책으로 한정.

대학생을 타깃으로 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임대료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다. 둘째, 신규 주택의 건설과 공급보다는 공공 매입 또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기존 주택을 개량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셋째, 그러한 개량 방법에서 쉐어하우스 등 공동 주거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에 대응하는 정책 기조에 따른 세부 지원 방법을 살펴

보면서, 장소애착과 주민성의 측면에서 대학생 거주자를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 형태에 있어 단독주거가 장소애착 형성에 유리하다. 자신이 생활하는 주택 공간에 대한 애착과 지역에 대한 애착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므로, 주거 공간에서 내 집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기숙사 건립과 쉐어하우스 형태의 임대보다는 1인 가구의 독립 공간을 임대하거나 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하는 금융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인 가구에게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대학생 거주자에게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여타의 주거 취약계층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대학생 거주자는 생활 영역에서 캠퍼스와 주거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임시성의 특성 하에서 비교적 간소한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소애착의 형성 요인에 있어서도 주택의 성능 조건보다는 거주자에 적합한 근린시설 등 장소 의존성(PD)과 관련한 요소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미국 뉴욕과 독일 뮌헨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마이크로 하우징(Micro Housing)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침실 공간과 부엌, 화장실이 포함된 컴팩트한 원룸주택 형태의 초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27)]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과 같은 금융 지원은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거주자 스스로 입지와 주택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전세제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2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LH가 주관하는 청년전세임대 사업은 최근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다.

둘째, 공동주거에서는 최소한의 1인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소애착 형성의 측면에서는 단독주거가 바람직하나, 높은 임대료와 매입주택의 내부구조 때문에 쉐어하우스 등 공동주거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원룸이나 방 한 칸을 다수인이 공유하는 형태보다는 최소한의 개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서 취사시설과 욕실을 공유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경희대, 세종대 등에 건립된 행복기숙사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학교와 인접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으나, 4개월에서 6개월로 분절되는 학기 단위로 입주자가 변동되어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지 못해 애착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

27) 김현우, 2016.10.28., "초소형 주거 '마이크로 하우징' 치솟는 주거비 대안 될까" 한국일보.

3_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출신의 대학생 거주자가 회기·이문 지역 대학촌에 살아가면서 형성하는 경험과 인식을 통해 장소애착의 형성 요인을 살펴보았다. 심층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경험과 선후,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주거 생활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대학생 거주자는 주거 공간에 대한 소속감과 캠퍼스에 대한 장소자산적 의미 부여, 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통해 '주민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촌을 둘러싼 캠퍼스타운 개발과 청년 주거 지원에 있어 정책적 대응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거주자를 단순히 수요자로 바라보기보다, 지역의 정체성과 상호작용하고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으로 새롭게 조명하였다.

한편, 대학 캠퍼스의 물리적-기능적 구성이 구성원들의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 연구 공간으로서의 캠퍼스를 넘어 거주자들에게 캠퍼스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병수·최영일, 1998, “대학촌의 계획모형과 도입기능: 청양대학 수요조사를 중심으로”「사회과학연구」, 9, pp. 349~363,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연희, 2010, “Mixture Model을 이용한 패션 제품 소비자의 시장세분화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지경, 2013,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 유형 및 주거 부담 현황”,「청소년정책리포트」4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태현· 이태희, 2017,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정책리포트」, 228, pp. 1~19, 서울연구원.

김종배 외, 2013,「대학생 주거실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한 기숙사 건립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

김흥순, 2010, “서울시내 주요 대학 주변 토지이용 특성 연구”,「도시행정학보」, 23(4), pp. 151~174, 한국도시행정학회.

서울특별시, 2018,「민선 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실천계획서」.

신현식·오훈석, 2016, “장소자산을 통한 지역축제의 장소마케팅 전략 연구-평창효석문화제를 중심으로”,「호텔관광연구」, 제18권 제2호, pp. 268-269, 한국호텔관광학회.

여혜진·김광중, 2008. “대학-지역사회 협력적 계획의 한국적 여건”, 43(5), 91-106,「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유재득, 2012,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위한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5, 홍익대학교 대학원.

이민아·유복희, 2017, “대학생이 인식한 주거의미 및 이상적인 주거 환경 분석”,「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6), pp. 41-52, 한국주거학회.

이형진·김경배, 2010, “문화산업 집적지로서 도심속 대학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11(1), pp. 179~196,「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

임다혜, 2015, “선호 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위래, 2011, "주민 참여형 소공원에서의 장소애착이 공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은영, 2014,「서울시 청년가구의 실태와 정책 연구」, 민주정책연구원.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8,「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여름호」.

An, O. -H., Jo, O. -M., & Hao, J.,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housing viewpoint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0(4), pp. 121-129, Korean Housing Association.

An, O. -H., Kang, H. -K., & Jo, Y. -M., 2009, "Comparison on the time series of housing viewpoint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0(4), pp. 113-120, Korean Housing Association.

Blake Gumprecht, "THE AMERICAN COLLEGE TOWN", *Geographical Review*, 2003, 93(1), pp. 51~80.

Ju, S. R., & Kim, D. Y., 2014,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consciousness and space usage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5(4), pp. 111-123, Korean Housing Association.

Stefan Muthesius, 2001, *The Post war University*, Yale University Press.

http://data.si.re.kr/node/55(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https://data.seoul.go.kr/(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김범수, 2019.04.25.,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 … 1코노미족 확산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세계일보.

김현우, 2016.10.21., 초소형 주거 '마이크로 하우징' 치솟는 주거비 대안될까,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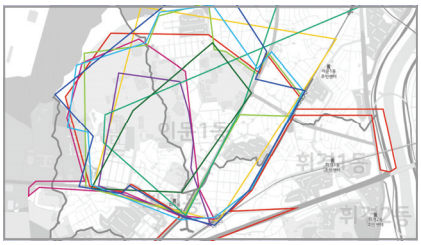
이환주, 2019.01.10., "서울 1인 청년가구 3명 중 1명 '지옥고'에 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임태우, 2016.08.26., "[리포트+]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고시원 … 살 곳 없는 대학생", SBS.

황재하, 2018.11.19., "경영난에 문 닫은 30년 전통 학교 앞 찻집 되살려 낸 대학생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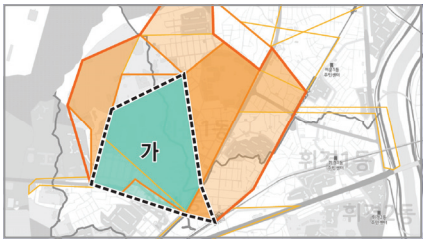
부록1: 인터뷰 참여자의 내 동네 권역 지도

인터뷰 대상자 9명을 대상으로 회기 이문 지역 '내 동네' 권역 지도를 그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내 동네 권역 지도 그리기 활동'은 구체적으로 참여자가 '내 동네'라고 인식하는 구역의 범위를 살펴보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활동이다. '여기까지 내 동네다'라고 인식하는 범위의 기준은 오로지 주관적인 참여자의 판단에 따른다. 워크숍에 참석한 4명의 참여자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나머지 참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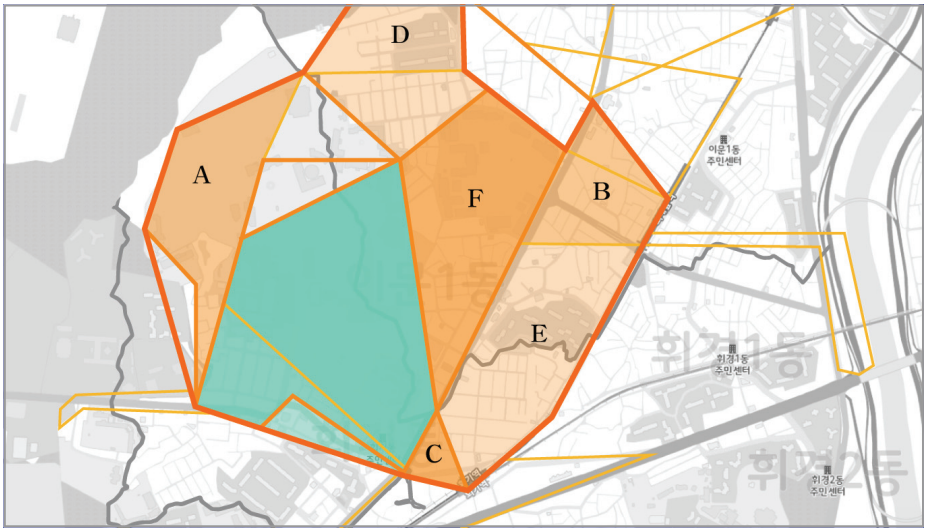
[그림 1] 참여자 전체 인식지도

[그림 2] 단순화



[그림 3] 공통 인식 영역

참여자 전원이 내 동네라고 인식하는 구역은 [그림 3]의 가 영역과 같았다. 지도는 경희의료원과 경희여자고등학교 건물을 경계로 시작해 경희대 중문·후문을 잇는 길을 따라 한정된다. 또한 경희대학교과 경희대학교 정문 앞 상가 일대가 포함된다. 한 참여자를 제외하면 경희대학교 삼거리에서 회기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경계가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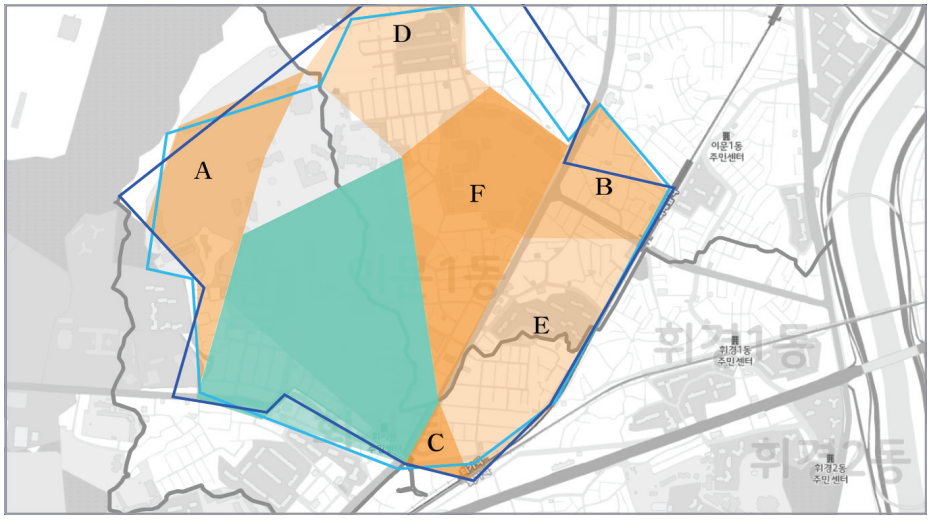


[그림 4] 참여자 인식 기반 구역 구분

[표 1] [그림 4]의 표시 내용

구역	범위
A	경희의료원, 경희여고를 지나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경희 초등학교를 포함하는 구간
B	외대 정문부터 외대앞역 사이 인근 거리
C	회기역 사거리와 회기역 사이
D	이문동 레미안 1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외대, 경희대 후문 권역
E	회기역과 외대앞역 사이, 이문동 레미안 2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구간
F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전 구간을 포함한 이문1동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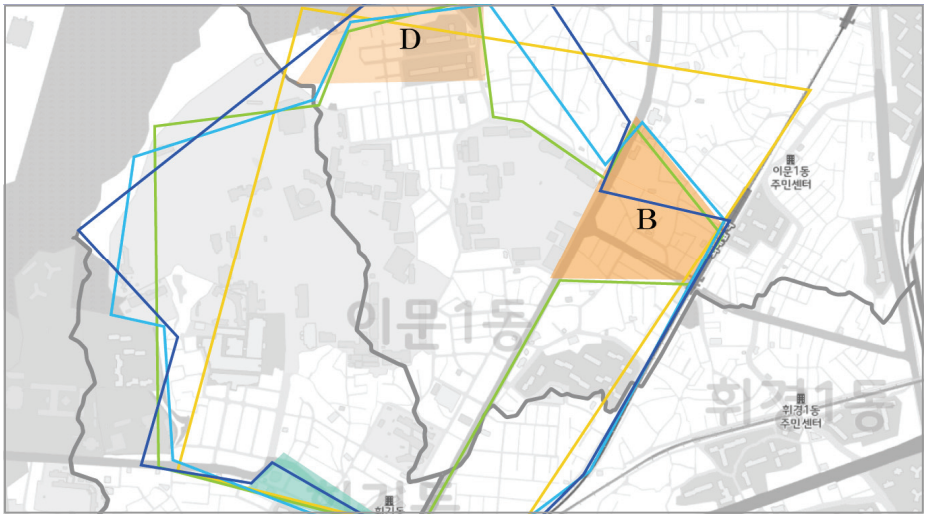
참여자들의 상반된 인식에 따라 경계가 발생하는 구역 6곳을 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경희의료원, 경희여자고등학교를 지나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경희 초등학교를 포함하는 A 구역, 외대 정문부터 외대앞역 사이에 위치한 인근 거리를 포함한 B 구역, 회기역에서 회기역 사거리 사이의 C 구역, 경희대·외대 후문을 지나 이문동 레미안 2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D 구역, 회기역과 외대역 사이에 위치하며 이문동 레미안 1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E 구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전 구간을 포함한 이문1동 일대의 F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5] 지역 인식의 그룹별 차이점 대비

넓은 범위의 인식 지도 사례

먼저 연구 참여자 [통영], [해운대]의 경우 해당하는 모든 구역을 '내 동네'로 인식하였으며 지도의 형상 또한 서로 매우 흡사했다. 이들의 지도는 참여자 전체를 병합한 지도와 비교해도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회기·이문 지역의 캠퍼스와 역(경희대학교-회기역-외대앞역-한국외국어대학교)을 중점으로 이를 둘러싼 둥근 원의 형태가 일반적인 지도의 모습이다. 캠퍼스 주변뿐만 아니라 인근 주거지(D 구역, E 구역, F 구역 등)까지 대부분 자신의 동네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희대 앞 삼거리 너머의 회기동 주거지는 참여자들의 인식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이들의 동네 인식이 '회기동', '이문동' 등 행정상 명시된 경계선에 따라 발생하기보다는, 캠퍼스에 영향 받은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회기동과 이문동을 구분하기보다 하나의 통합된 권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6] 지역 인식의 그룹별 공통점 강조

D 구역을 '내 동네'라고 인식한 참여자는 모두 B구역을 포함하였다.

B 구역과 D 구역을 모두 자신의 동네라고 인식한 참여자는 총 4명이었다. 두 명의 참여자는 위에 언급된 [통영]과 [해운대]이고, 나머지 두 경우는 외대 출신 학생이었다. 외대 출신 학생 모두가 이 구역들을 인식한 것을 볼 때, B 구역과 D 구역(외대앞역부터 이문동 레미안 1차 아파트까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와 밀접하게 연계된 생활권역으로 보인다. 특히 D 구역을 자신의 동네라고 인식하는 경우 B 구역 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두 명의 외대 출신 참여자들은 권역 지도에서 B, D, F 구역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록2: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참여 대학별 주요 내용(종합형, 1단계 단위형)

[표 1] 종합형 사업 참여 대학

대학명	주요 내용
고려대학교 (성북구)	① 대학가 캠퍼스타운 거점 공간 조성 ②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안암동 청년·창업·문화 캠퍼스타운 조성
광운대학교 (노원구)	① IT와 문화·예술이 융합한 대학 특화거리 조성 ② 대학가 소상공인·청년장사꾼 역량 강화 및 청년 주거 지원 환경 개선
세종대학교 (광진구)	① 광진광장 및 어린이공원역과 지역 창업 거점을 연결하는 거점 공간 조성 ② 지역 연계 수업 등 대학의 교육 기능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헌
중앙대학교 (동작구)	① 한강과 지역 창업 거점을 연결하는 대학 문화가로 조성 ② 대학가 골목상권, 재래시장 활성화 및 하숙촌 환경 개선

[표 2] 1단계 단위형 사업 참여 대학

대학명	주요 내용
광운대학교 (노원구)	① 대학의 특성인 IT분야를 중심으로 창업 육성 ②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IT창업 진로 체험 교육
동국대학교 (중 구)	① 영상·한류 문화 중심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② 남산 주변의 역사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성공회대학교 (구로구)	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심의 창업 모델 ② 다문화가정 지원을 통한 지역 협력
성균관대학교 (종로구)	① 관광산업, 문화예술 중심의 창업 모델 ② 전통문화재·명소를 기반으로 관광 산업 창업 지원

대학명	주요 내용
숙명여자대학교 (용산구)	①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청년 창업 모델 ②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
홍익대학교 (마포구)	① 디자인·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모델 ② 청년 예술인의 예술 작품 및 디자인 거래·특허 지원
한성대학교 (성북구)	① 청년 예술인 레지던스를 통한 주거 지원 ② 대학 문화 및 예술인을 활용한 성곽마을 관광 자원화
경희대학교 (동대문구)	① 공유형 상점 운영을 통해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② 청년 상인 발굴·육성
동양미래대학교 (구로구)	① 대학 특성인 디자인을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② 구로 지역 소상공인 대상 기술 자문과 창업 지원
서울대학교 (관악구)	① 서울대 인적 자원을 활용한 녹두거리 상권 활성화 ② 서울대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지원
인덕대학교 (노원구)	① 대학 문화, 공연 등을 활용한 국수거리 상권 활성화 ② 창업 페스티벌을 통한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대문구)	① 간호대학 특성을 활용한 대학과 지역의 상생 모델 ② 지역 내 시니어 일자리 창출
케이씨대학교 (강서구)	① 대학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저소득 청소년 교육 ② 청소년 리더십 개발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부록3: 참여자들의 회기에 대한 인식 변화

참여자	서울에 대한 인식	회기의 첫인상	회기의 장점
통영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대한 동경심이 있잖아요. 서울은 모든 게 세련되고 멋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대한 로망)	회기는 서울의 이미지와는 조금 먼, 서울의 구석 혹은 변두리와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서울의 변두리 느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아요. 조용하고요. (조용함)
해운대	막연하게는 부산보다 더 발달된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번화한 도시)	제 생각에는 좀 다르게 낙후되었다고 느꼈어요. (낙후)	회기가 사람이 적다 보니 이게 오히려 저한테 메리트에요. 번잡한 걸 싫어해서. (적은 유동인구)
대전 생물	서울은 홍대나 이런 번화가라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 (번화한 도시)	이 동네가 다른 데보다 어둡고 내가 생각한 대학 이미지랑 달라서 실망했어요. (어둡고 칙칙함)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좋다. 덜 번화가이면서 우리학교 학생들만 다니고. (적은 유동인구)
대전 중통	처음에 사람은 복잡하고 인구도 많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번화한 도시)	외대 거리가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낙후)	한적한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조용함)
부산	그 서울스퀘어라고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아 서울이 되게 좋은 곳이다 했어요. (번화한 도시)	이문동 처음 왔을 때 생각했던 서울의 이미지와 달리 좀 허름하다고 생각했어요. (낙후)	추억이 많이 있고 내가 익숙한 장소인 거요. (익숙함)

참여자	서울에 대한 인식	회기의 첫인상	회기의 장점
창원	서울에 대한 환상이 컸어요. 한강이 보이는 고층 건물같이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혼자 꿈꾸는 경우가 엄청 많았고요. (서울에 대한 로망)	신이문역, 거기가 정말 예스러워요. (낙후)	번화가가 아니라 조용한 편이고 애들이 많다는 거요. (조용함)
충주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 놀러 다니면서 대학가에 대한 선망도 생겼고요. (서울에 대한 로망)	고향과 비슷하다는 게 회기동의 처음 이미지였어요. (고향과 유사함)	홍대랑 비교했을 때 밤에 확실히 시끄럽지 않고. (조용함)
대구	서울에 홍대, 건대 이런 엄청 유명한 핫 플레이스들을 보면서 문화를 즐길 게 좀 많을 것 같다는 그런 로망이 좀 많았어요. (서울에 대한 로망)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냥 저희 고향 같았어요. 그냥 살짝 제가 생각한 그런 번화가가 아니었다는 느낌이었어요. (고향과 유사함)	저는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후문은 번화가가 아니라 더 편하게 느껴져요. (적은 유동인구)
전주		회기는 누추하고 구질구질한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낙후)	유동인구가 적어서 요란 법석한 것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함)

부록4: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회기·이문 지역의 장단점

참여자	장점	단점
통영	제가 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 동네에 살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이 정도로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캠퍼스) 장점이라고 하면 학교가 있고, 카페가 있고, 의외로 찾아보면 구석구석 맛집이 많아요. 그리고 놀 것이 많다는 것. (학생 거주 적합) 사람 너무 많은 곳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좋아요. 조용하고요. (조용함)	쇼핑을 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요. (쇼핑 시설 부재)
해운대	회기는 사람이 적어서 좋아요. (적은 유동인구)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싸다. (싼 물가) (고향 집과 비교) 카페, 코노, 술집이 다 없어요. 하지만 회기는 집 앞에 나가면 카페, 놀 공간이 있다는 게 그러면서 사람은 또 없다는 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학생 거주 적합)	다른 대학가 상권보다 낙후되어 있어요. (낙후)
홍성	(고향집 비교) 집 앞에 코인노래방 많고, 또 PC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저에게는 할 게 다 있는 곳이었어요. (학생 거주 적합)	오랫동안 봐서 지겨운 느낌이에요. (지겨움)

참여자	장점	단점
대전 생물	서울 다른 대학에 비해 자연 친화적인 학교. (학교 캠퍼스) 중앙선 다니는 게 이득이에요. (교통)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좋다 (적은 유동인구)	상점들이 한정적이고 자주 바뀌어요. (잦은 변화)
대전 중통	한적한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조용함)	옷 사고 싶을 때나 그럴 때 나가야 한다는 거요. (쇼핑 시설 부재)
부산	추억이 많이 있고 내가 익숙한 장소인 거요. (익숙함)	고양이 울음소리가 되게 시끄러워요. 특히 외국인 분들이 되게 시끄러워서. (소음)
창원	번화가가 아니라 조용한 편이고 애들이 많다는 거요. (조용함)	동네가 삭막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무서움)
충주	회기·이문 지역이 다른 대학가에 비해 물가가 싸서 좋죠. (싼 물가) 홍대랑 비교했을 때 밤에 확실히 시끄럽지 않고. (조용함)	단점은 너무 빨리 상가가 바뀐다는 점이요. (잦은 변화)
대구	친구들이 회기·이문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친구들)	(대외활동 등을) 회기 지역에서 주최를 한다거나 그런 횟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행사 부재)
강릉	지금은 내가 대학생이고 학교 바로 앞이라 애착이 더 큰 것 같다. (학교 캠퍼스) 장점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요. (친구들)	가격적인 면에서 그 가격이면 더 좋은 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싼 물가)
전주	유동인구가 적어서 법석한 것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함)	교통이 너무 안 좋다. (교통) 상권이 너무 작다. (낙후)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8-12

비수도권 출신 서울 대학생의
도시애착 형성 요인과 정책 과제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19년 5월 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